

To the World, Be the Best

# 스포츠코리아

SPORTS KOREA

02  
2015





### 2015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2015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공식 훈련이 시작됐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1월 15일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양궁, 빙상 등 11개 종목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38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및 체육인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개시식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설훈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철승 전 대한체육회장 겸 고문,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원희 유도 국가대표 코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리우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해로 여러분의 땀과 노력은 한국 스포츠의 우수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다"며 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올리고, 훈련이나 경기 중 다친 선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랑스러운 태극마크가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만족할 수 있는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런던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구본길(26·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18·세화여고)가 선수 대표 선서를 했다.





02



12



26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3골을 넣어 팀 내 최다골을 넣은 선수로 이름을 올린 손흥민. <사진: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월간지 《스포츠코리아》

발행인 김정행 회장

편집인 양재완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회관 8층)

Tel 02.2144.8104 Fax 02.420.4233

홈페이지 www.sport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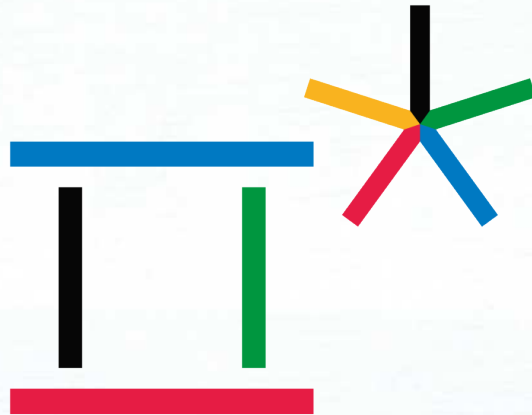
등록번호 서울 라 10977

등록일 1965년 12월 28일

발행일 2015년 2월 2일

편집/제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Tel 02.511.5799

02	특집	'메달 20개 종합 4위' 평창 프로젝트 본격 가동
12	결산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발견한 한국 축구의 희망
14	전망	'눈과 얼음의 대축제' 동계체육대회 2월25일 개막
16	기획	체육의 국력화에서 선진화로 가자
20	칼럼	장충체육관, 한국체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다
22	칼럼	한국 여자골프, 112년 만의 올림픽 금메달 보인다
24	초대석	유준상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26	인물열전	한국농구 전설의 슈터 신동파
30	조명	스포츠 에이전트, 왜 필요한가
32	스포츠특특	박소연, "다음 목표는 4대륙대회"
34	시도지부 탐방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하>
38	체육회 부서 탐방	스포츠의과학부
40	소개	인사·평가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42	부리를 찾아서	대한카누연맹<하>
44	뉴스	체육계 뉴스 & 동정
48	캘린더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2월 대회 일정



# PyeongChang 2018



## 메달 20개 종합 4위

야심만만 평창 프로젝트 본격 가동

한국은 2018년 안방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20개에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6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비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대책 보고회'를 열고,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총 20개 메달을 획득, 사상 처음으로 세계 4위에 오른다는 '평창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우리의 야심찬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종목별 전력을 집중 분석했다. [편집자 주]



## 스피드스케이팅 스피드 코리아의 끝나지 않은 꿈



이상화



이승훈(노란모자)

한국이 1990년대 이후 동계올림픽의 강국으로 등극할 수 있는 힘은 단연 쇼트트랙이었지만, 최근 '스피드 코리아'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게 된 원동력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성장한 스피드스케이팅이라 할 수 있다. 밴쿠버올림픽에서 참가국 가운데 1위(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참가국 가운데 공동 3위(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기록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은 안방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도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평창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의 목표 성적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로 잡았다. 소치올림픽은 물론이고, 밴쿠버올림픽 때보다 메달이 1개 더 많은 최고 성적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목표 달성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3개 대회 연속으로 이 종목의 '톱3' 안에 포함되는 명실상부한 스피드스케이팅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표를 세우게 하는 '믿는 구석'은 여전히 밴쿠버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 정상의 스케이팅으로 발돋움한 '빙속 삼총사'다. 의심의 여지 없는 여자 단거리 최강자 이상화와, 장거리의 간판스타 이승훈, 남자 단거리의 안정적인 에이스 모태범이 3년 뒤 평창에서도 활약을 이어가 준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안방 올림픽의 목표 중 핵심인 '금메달 2개'를 기약할 수 있다. 특히 여자 500m에서 3연패를 노릴 이상화와 신설 종목인 매스스타트에서 남자부 초대 금메달리스트 등극을 꿈꾸는

이승훈이 전략의 핵심에 있다.

관건은 평창올림픽에서 30대에 접어들 두 선수의 몸 상태다. 특히 이상화는 무릎 통증을 안고 뛰는 중이다. 아직 수술할지, 재활을 통해 상태를 호전시킬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승훈 역시 나이가 들수록 지구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잘 관리한다면 두 선수 모두 노련미를 더해 정상을 노릴 만하다. 평창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상화는 최근 들어 3연패 도전에 나서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은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데다 지구력이 좋은 자신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매스스타트 종목으로 평창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의욕이 크다.

두 선수가 앞장서서 쌓아올리는 가운데, 소치올림픽에서 다소 부진했던 모태범과 쇼트트랙에서 전향한 뒤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박승희가 어느 정도나 평창까지 기량을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대표팀의 전체 전력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베테랑' 축에 드는 이들 네 선수의 아래에서 젊은 유망주들이 성장하는 것이다. 대표팀에서 내심 '제2의 모태범'으로 기대하는 김준호를 비롯해 장거리의 김철민, 주형준, 중거리의 김민석 등이 기대주다. 더 어린 선수 중에도 최근 주니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는 김한송, 양승용 등이 쑥쑥 자라나고 있다. 여자부로 눈을 돌리면 유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장미와 주니어의 김민선, 남예원 등을 눈여겨

볼 만하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과 같은 순위 싸움이 접목된 매스스타트가 처음 도입되고 남녀 팀추월이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여러 개의 메달을 따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힘을 얻는다.

남은 3년간 간판 선수들이 기량 하락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고, 젊은 선수들이 더 가파르게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대한빙상경기연맹도 지난해 가을 유망주 위주의 평창올림픽팀을 창설하고, 빙속 최강국인 네덜란드와 제휴하는 등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말에는 SK텔레콤이 4년간 26억원을 후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도 나아지고 있다.

### 주목할 유망주 스피드스케이팅 김준호



모태범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스타로 갑자기 올라섰듯이, 평창올림픽에서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선수가 김준호(19·한국체대)다. 지난 시즌 처음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준호는 올 시즌 2차 월드컵에서 남자 500m 디비전A(1부리그)에 진입했고,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12월 태릉에서 열린 전국 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는 모태범을 따돌리고 '깜짝 우승'을 이루기도 했다. 아직은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대기'지만, 순발력이 좋고 영리해서 코치의 지도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



### 쇼트트랙 평창에서 다시 절정을 맞는다

한국 쇼트트랙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한국 동계스포츠의 효자 종목이다. 오심 등의 외부적 요인이 없는 한, 1994년 동계올림픽부터 빼놓지 않고 5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해 왔다. 그 중에서도 굳이 '최전성기'를 꼽자면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될 것이다. 남자부의 안현수와 여자부의 진선유라는 걸출한 스타가 나란히 맹활약한 이 대회에서 한국은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 6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10개의 메달을 휩쓸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연달아 금메달 2개로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 한국 쇼트트랙은, 평창에서 다시 전성기와 같은 위용을 되찾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쇼트트랙의 평창올림픽 목표 성적으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내 걸었다.

이런 자신감의 중심에는, 이제 감히 '역대 최강'이라는 말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진 여자 쇼트트랙이 있다. 소치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박승희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했지만 '언니' 없이도 여자 대표팀은 올 시즌 네 차례 월드컵에서 10개의 금메달을 휩쓸며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박승희의 공백을 완벽히 메운 주역은 전이경-진선유의 계보를 잇는 '새 여왕'이라는 칭호가 이제 어색하지 않은 여고생 심석희다. 지난 두 시즌 연속으로 월드컵 종합 우승을 달성한 심석희는 소치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거쳐 더욱 완성된 스케이터로 재탄생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대형 유망주인 최민정이 시니어 데뷔 시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기대를 부풀린다. 앞으로도 계속 경험을 쌓아나갈 심석희와 최민정이 부상 없이 기량만 유지해 준다면, 평창올림픽에서 최소 3개의 금메달은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결국, 한국 쇼트트랙이 평창에서 다시 절정의 맛을 수 있느냐



신다운(맨앞)과 이한빈



심석희(왼쪽)와 최민정

를 가를 열쇠는 남자 대표팀이다. 경쟁국들의 기량이 날로 올라와 이제는 '상향 평준화'에 이른 남자 쇼트트랙에서 쉽게 평창올림픽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소치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친 최악의 시련을 벗어나 반등할 듯한 조짐이 보이는 점은 희망을 품게 만드는 요소다.

2013-2014시즌 월드컵에서 노진규의 이탈 이후 에이스를 잃어버리고 금메달 1개를 겨우 따내는 데 그쳤던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는 네 번의 대회에서 벌써 11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부상과 부진을 떨치고 돌아온 베테랑 곽윤기, 이정수가 한풀이하듯 질주했고 신다운, 서이라, 박세영 등도 선전하고 있다.

특히 시선을 끄는 부분은 신다운의 활약이다. 신다운은 노진규 이후 한국 쇼트트랙을 이끌어야 할 새 에이스로 지목됐지만,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데다 초반 악재까지 겹치면서 페이스가 죽어 올림픽에서 부진했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네 차례 월드컵에서 꼬박꼬박 1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치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좌절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기량을 더 갈고 닦는다면 신다운은 평창에서 남자 대표팀의 대들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서이라, 박세영 등 단거리 종목까지 두루 능력을 갖춘 젊은 선수들이 성

장하고 있는 데에도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쇼트트랙은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이뤄진 만큼, 아주 작은 기량 차이에서 메달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조금이라도 더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 선발전을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대표팀 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키워 끊임없이 생존 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주목할 유망주**

**쇼트트랙 최민정**



여자 쇼트트랙은 평창올림픽에서 역대 최강의 '투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치올림픽을 통해 이미 스타로 올라선 심석희의 뒤를 이어, 슈퍼루키 최민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올 시즌 성인 무대에 처음 얼굴을 비친 최민정은 벌써 월드컵에서 4차례 개인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계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심석희와 달리 아담한 체구의 최민정은 강한 힘을 스케이트에 온전히 실음으로써 폭발적인 가속도를 내는 스타일이다. 일찌감치 지도자들에게 "심석희를 잡을 선수"라는 평가를 받던 최민정이 경험을 쌓아 강해질수록,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도 긍정적인 내부 경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피겨스케이팅 '김연아의 유산' 을 거름 삼아, 발을 일군다



이준형



김진서



김해진

한국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꿈결처럼 끝났다. 밴쿠버올림픽 금메달과 소치올림픽 은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한 '피겨 여왕' 김연아는 불모지에서 피어난, 세계 피겨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꽃이라 할 만했다.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228.56점)을 비롯해 김연아가 남긴 숏한 기록은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제 그 꽃이 졌고, 전설과는 다른 현실의 시대가 시작됐다. 김연아가 떠난 자리에서 한국 피겨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때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겨스케이팅의 평창올림픽 목표 성적으로 '8위권 진입'을 설정했다. 메달 색깔을 두고 고민한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과 달리 소박한 목표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김연아라는 꽃이 지면서 거름이 돼, 척박하기만 하던 토양이 조금이나마 촉촉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연아 키즈'라는 어린 선수들이 자라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유망주 박소연은 김연아 이후 최초로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두 개 대회 초청을 받았고, 연달아 5위에 올랐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9위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출전만 하면 맡겨둔 물건을 찾아가듯 금메달을 따내던 김연아의 사례만 잠시 기억에서 지워본다면, 박소연의 성적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선전이다.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박소연이 기량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조심스럽게 '메달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장밋빛전망까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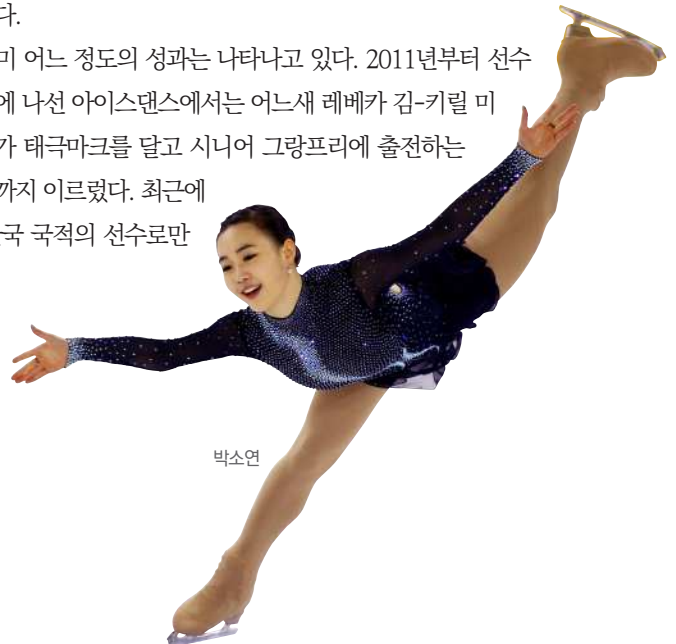
박소연 외에도 김해진, 최다빈, 김나현 등의 선수가 시니어와

주니어 그랑프리 무대를 누볐고, 남자부에서는 맞수 관계를 형성한 김진서와 이준형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준형은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남자 피겨 사상 최초의 국제대회 우승자가 됐고, 김진서는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200점을 넘겼다.

여자부에서나 남자부에서나, 김연아의 등장 이전에 비해 선수들이 많아졌고 이 가운데 좋은 선수들은 서로를 자극해 삼아 점점 더 나은 기량을 보이고 있다. 김연아만큼 화려한 꽃을 피울 수는 없지만, 흐뭇한 수확 정도는 거둘 수 있는 '밭'을 일구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내놓은 평창올림픽의 목표 중 8위라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전 종목 출전자 배출'에 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이후 명맥이 끊어진 아이스댄스와 페어스케이팅을 부활시켜 더 넓은 밭을 일구겠다는 의지다.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 2011년부터 선수 육성에 나선 아이스댄스에서는 어느새 레베카 김-키릴 미노프가 태극마크를 달고 시니어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최근에는 한국 국적의 선수로만



박소연



구성된 이호정-감강인이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고난도 기술이 많아 선수 육성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페어스케이팅에서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지도자 독일의 잉고 슈토이어 코치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선수 발굴을 시작했다. 최휘와 정유진 등 국내 여자 선수에게 외국인 남자 파트너를 붙여 훈련을 시작했다. 아이스댄스가 선수 육성 초기에 그랬듯이, 페어스케이팅에서도 다소 삐걱거리는 면은 있으나 선수와 코치, 연맹의 의지가 모두 강한 편인 만큼 시행착오를 잘 극복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글·고동욱 연합뉴스 기자

### 주목할 유망주 아이스댄스 이호정-감강인

이제 갓 평창올림픽을 향해 기지개를 편 한국 아이스댄스에도 내부 경쟁의 새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지난해 팀을 결성, 올해 종합선수권대회에서 국내무대에 첫 선을 보인 이호정(18·신목고)-감강인(19·휘문고)이 주인공이다. 이호정-감강인은 이미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탈린 트로피'에서 결성 3개월 만에 첫 국제대회를 치러 108.84점으로 4위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였다.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최소 기술점수(쇼트댄스 18.00점·프리댄스 28.00점)도 넘겼다. 이들은 특히 두 선수 모두 싱글 종목에서 유망주로 꼽히던 선수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기본적인 스케이팅 기술이 좋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 썰매 종목(봅슬레이, 스킨레톤, 루지) 유망주들 폭풍 성장 '메달, 꿈이 아니다'

썰매 종목이 한국 동계스포츠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부터다. 이후 한국판 '쿨 러닝' 정도로 여겨졌던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의 도전은 세계무대에서 속속 전해오는 우수한 성적표로 인해 전략 종목으로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재평가를 받았다.

썰매 종목의 두드러지는 성장세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48년 생 모리츠 동계올림픽 이후 17번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한국 동계스포츠의 포커스는 빙상 종목에 맞춰져 있었다. 대한체육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목표로 구체적인 경기력 향상 방안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국가로서 경기력을 강화해 성적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저변 확대와 유망주 발굴을 통해 장차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인 셈이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스키협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썰매 종목에 기대하는 성적은 스킨레톤 금메달 1개를 포함해 최소 동메달 2개(봅슬레이 남자, 루지 팀 릴레이)다. 특히 최근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무서운 신예' 윤성빈(21, 한국체대)을 앞세운 스킨레톤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윤성빈은 1월 23일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 월드컵 5차 대회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2분16초77의 기록으로 한국 썰매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올 시즌 이 종목



스켈레톤 윤성빈

최강인 마르티스 두쿠르스(라트비아·2분16초17)에게만 0.60초 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치른 월드컵 2차 대회에서 3위에 올라 한국 썰매 역사상 최고 성적을 작성한 윤성빈은 불과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며 평창동계올림픽 메달의 꿈을 부풀렸다.

가파른 상승세로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FIBT) 월드컵 시리즈에서 세계 5위권의 성적을 달성해낸 원윤종(30), 서영

우(25, 이상 경기연맹)를 중심으로 한 남자 봅슬레이 2인승과 4인승도 최소 동메달을 노리고 있다. 월드컵 8위와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12위의 쾌거를 올렸던 루지 팀 릴레이도 3년 후 평창에서는 메달권에 도전한다는 목표다.

한국 썰매가 전통적인 썰매 강국 독일, 러시아, 미국, 그리고 북유럽의 벽을 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선수들의 경험과 코스 분석, 그리고 주행능력 개선을 위한 썰매 확보는 필수다.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전지훈련을 시작, 외국인 장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이 이번 월드컵 시리즈에서 각각 톱5 진입, 준우승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

대한체육회는 부족한 트랙 경험과 주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외전지훈련을 강화하고 썰매 강국인 캐나다 및 미국 대표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루지의 경우 현 100일에서 190일로 국외전지훈련 기간을 대폭 늘리고 외국인 코치도 증원할 계획이다. 물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내에서 훈련 가능한 트랙 건설임은 말할 것도 없다.

### 주목할 선수 원윤종과 윤성빈



팔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썰매 종목에서 유망주를 꼽자면 단연 원윤종(봅슬레이)과 윤성빈(스켈레톤)이

다. 파일럿 포지션에서 한국 남자 봅슬레이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원윤종은 2010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단 후 탁월한 코스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겉을 모르는 담대함이 트레이드마크인 윤성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대주다. 고교 3학년이던 2012년 스켈레톤에 입문한 윤성빈은 2014년 1월 대륙간컵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두각을 나타냈고,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16위를 차지해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인 올해 1월 월드컵 5차 대회에서 한국 썰매 역대 최고 기록인 은메달을 차지,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랙 적응을 통한 경험만 더 쌓으면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은 결코 꿈이 아니다.

## 스키 종목(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등) 기적은 있다



설상 종목 중에서도 스키는 동계올림픽에 있어 하계올림픽의 육상과 같은 위치에 있다.

지난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스키 종목에 걸린 금메달의 개수는 알파인스키 10개, 프리스타일스키 10개, 크로스컨트리 12개, 스노보드 10개, 노르딕복합 3개, 스키점프 4개 등 총 49개. 동계올림픽 전체 98개 금메달 중 절반의 금메달이 걸렸다. 바이애슬론(11개)까지 포함하면 개수는 더욱 늘어난다. 따라서, 평창 프로젝트의 메달 20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키 종목의 분발이 필수적이다.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종목을 빈손으로 마무리한다면 평창 프로젝트의 목표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동계 종목 강국인 러시아와 캐나다, 미국, 독일을 보면 스키를 포함한 전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는 스키 종목에서 따낸 8개의 금메달과 바이애슬론(3개)을 포함해 11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그러나 소치올림픽 스키 종목에서 한국이 가져온

메달은 단 한 개도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한국 스키 종목의 실력은 아직 메달권 진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알파인 스키와 노르딕 복합은 40~50위권, 스키점프는 60위권, 그리고 크로스컨트리는 100위권을 맴돈다. 메달권은 커녕 결선 진출이 목표인 종목도 많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스키협회는 평창올림픽 메달 가능성이 높은 우수 선수에게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기력 향상 방안을 내놓았다. 설상 및 썰매 종목이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중·상위권 진입을 통해 종목 다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메달 획득을 위해 종목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신인선수 발굴을 위해 꿈나무-청소년-후보 선수를 육성하는 계획과 함께 신규 창단비,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실업팀을 창단, 동계 종목 자체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뚜렷한 스타가 없는 스키 종목에서 현재 가장 메달 가능성이



모굴스키 최재우

높은 선수는 프리스타일 모굴스키의 최재우(21, 한국체대)다. 최재우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결선 무대를 밟아 가능성을 보였고, 최근에는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한국 스키 사상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스노보드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 스노보드 선수 최초로 FIS 세계선수권대회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결선에 진출, 10명 중 8위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설상 종목 또 한 명의 기대주로 떠오른 이광기(22, 단국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목표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3년 후인 2018년 시점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로 올림픽팀을 구성,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대한체육회의 비전에 적합한 선수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국내훈련 및 국외전지훈련, 국외훈련캠프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코치와 훈련 장비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스키종목이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용 훈련시설과 전용 슬로프의 확보다. 동계 종목 전체적으로 국가대표 전용 훈련시설이 취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설상 종목은 전용 슬로프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 중에서도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입상 가능성이 큰 전략 종목으로 분류해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점프대에 공중훈련이 가능하도록 점프훈련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키 종목에 기대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의 메달 입상, 그리고 알파인 스키와 스키 점프의 10위권 진입 및 크로스 컨트리 결선 진출(30위권 진입)이다. 노르딕 복합의 경우, 아직 단 한 차례도 대회에 내보낸 적이 없는 현실을 깨고 첫 출전을 노린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안방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한국 설상 종목을 한 단계 이상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김희선 OSEN 기자

#### 주목할 선수

#### 최재우



한국 스키 종목에서 기대를 걸만한 가장 유력한 유망주는 최재우다. 첫 출전한 올림픽 무대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며 한국 스키 사상 첫 결선 진출에 성공한 최재우는 결선 2라운드에서 아쉬운 실격으로 메달의 기회를 평창으로 미뤘다. 소치에서의 깜짝 활약에 그치지 않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세계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최재우가 한국 설상 종목에 첫 메달, 혹은 첫 금메달을 안겨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이광기와 알파인의 이상호(20, 한국체대) 역시 3년 후가 기대되는 유망주들이다.



## 아이스하키 남자는 8강, 여자는 1승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녀대표팀이 기대하고 있는 목표는 소박해 보인다. 남자는 8강, 여자는 1승. 그러나 국제 아이스하키계의 세력 판도를 살펴보면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이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면서 드디어 사상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2015년 기준으로 남자는 세계랭킹 23위, 여자는 24위다. 올림픽에는 남자부 12개 팀, 여자부 8개 팀이 출전하는데 10위권 팀과 20위권 팀과의 격차는 10골 차 이상이다. 한국보다 확실히 한 수 위인 일본조차 현재의 시스템이 가동된 최근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올림픽 개최국의 잇점을 살려 자동출전권을 부활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멋진 승부로 팬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 슬로베니아를 배워라

동유럽에 있는 슬로베니아는 인구 2백 만 명, 남한 면적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나라다. 실내링크가 단 7개 밖에 없고, 총 등록선수의 수도 1,020명에 불과한 슬로베니아의 세계랭킹은 14위다. 슬로베니아는 놀랍게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7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림픽은 한조에 4개 팀씩 3개조로 나눠 예선리그를 치른다. 그리고 각조 1위 3개 팀과 2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1팀이 4강으로 직행하게 된다. 나머지 8개 팀은 본선에서 다시 경기를 해 8강에 합류할 4개 팀을 추리고, 다른 팀들은 하위팀 순위전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캐나다, 미국,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체코 등 정상권 팀보다는 7위권 이하 팀과의 단판 승부에서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슬로베니아는 소치올림픽 A조 예선에서 슬로바키아를 3대1로 꺾고 3위를 차지한 뒤 본선에서 오스트리아를 4대0으로 완파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 영 건 발굴에 여념 없는 백지선호

백지선감독은 지난 7월 부임 이후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18세 대표팀과 20세 대표팀, 그리고 국가대표팀을 선발했다. 20세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고 국가대표팀은 유로챌린지에 출전했다.

백감독은 유로챌린지 국가대표팀에 박계훈(고려대 4년)을 비롯해 신상훈, 안정현, 안진휘, 김원준(이상 안양 한라), 성우재



(일본제지 크레인스) 등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발탁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등 한국보다 세계랭킹에서 앞서 있는 팀을 꺾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표팀의 평균 신장도 사상 처음 1m80cm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백감독은 U-20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대학선수들을 이끌고 출전해 3위를 차지했다. 백감독은 대표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지난 12월 U-20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친 뒤 백감독은 곧바로 미국으로 직행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2,3세 유망주 발굴과 함께 한국 국적 취득시 대표팀에 보탬이 될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다. 외국인 선수를 아시아리그에 투입시킨 뒤 귀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년 뿐이다.

이미 한국은 브락 라던스키(한라), 마이크 스위트, 브라이언 영(이상 하이원) 등 3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아직 2~3명 정도의 선수를 더 영입할 수 있다. 일본은 나가노올림픽 때 7명의 외국 선수를 귀화시켰다.

양승준 협회 전무이사는 “여자팀은 올해부터 플타임으로 합동훈련을 시작한다. 그러나 남자는 2016년부터는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올해까지는 아시아리그가 끝난 뒤 해외 전지훈련 등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이스하키는 이미 백지선-박용수 콤비를 투입하면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하먼 된다’는 희망을 본 것이다. 1980년 레이크 플라시드 올림픽에서 대학선수로 구성된 미국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은 세계 최강팀이던 소련을 물리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한국 아이스하키도 빙판의 기적에 도전하고 있다.

글·성백유 하키뉴스 발행인 겸 편집인



## 컬링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된다

컬링은 2018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은메달, 남자 동메달의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현재의 경기력을 보면 결코 이루지 못할 허황된 꿈이 아니다. 2014년 12월 현재 세계컬링연맹(WCF) 랭킹에서 여자는 8위, 남자는 17위에 올라 있다. 여자는 지난해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10개 출전국 가운데 7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2위인 스웨덴과 4-7, 3위인 스위스와 6-8, 4위인 영국과 8-10으로 접전을 벌이는 등 상위권 나라들과 큰 실력 차를 보이지 않았다. 소치 대회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5위를 기록한 일본을 12-7로 잡았고 이후 WCF 랭킹에서 일본(9위)을 앞질렀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진 훈련 방법 도입을 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외국인 코치 초청 사업과 함께 WCF 상위 랭킹 나라들과 합동 훈련을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팀 초청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영상 분석가와 트레이너 등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대표팀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회 개최 경험과 대표팀 전력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2016년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와 2017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테스트 이벤트)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새해 벽두부터 '평창의 꿈'을 밝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실상 여자 국가 대표팀인 경북체육회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버니스컵에서 3위에 올랐다. 이



번 대회에는 스웨덴(WCF 랭킹 2위) 스위스(3위) 러시아(7위) 체코(12위) 등 세계적인 컬링 강국에서 32개팀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경북체육회는 3위 결정전에서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국인 스위스의 펠트세르 클럽을 접전 끝에 7-6으로 물리쳤다.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컬링 중주국인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그린힐국제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북체육회는 8강전에서 사실상 스위스 국가 대표인 펠트세르 클럽을 다시 한번 꺾었고 결승전에서 사실상 러시아 국가 대표인 시도로바 클럽에 4-6으로 석패했다. ❄️

글·신명철 대한체육회 홍보위원/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종목별 목표

종목	세부종목	현 경기력	2018년 목표	비고
빙상	스피드	중상위권(남,여)	금메달 2개	동4
	쇼트트랙	상위권(남,여)	금메달 5개	은3, 동1
	피겨	20위권	8위권 진입	싱글 10위, 아이스댄스, 페어팀(Event 출전)
3종목			금7, 은3, 동5	
컬링	남자	18위	메달입상(동)	
	여자	9위	메달입상(은)	
세부 2종목			은1, 동1	
봅슬레이 스켈레톤	봅슬레이(남)	15위	메달 입상(동2)	
	봅슬레이(여)	18위	10위권 진입	
	스켈레톤(남)	15위	금메달 1개	
	스켈레톤(여)	20위	10위권 진입	
세부 4종목			금1, 동2	
루지	남자	35위	10위권 진입	
	여자	29위	10위권 진입	
	더블	18위	5위권 진입	

종목	세부종목	현 경기력	2018년 목표	비고
루지	팀릴레이	12위	메달 입상(동)	
세부 4종목			동1	
스키	알파인	40위	10위권 진입	
	크로스컨트리	100위	30위권 진입	결선진출
	스노보드	30위	메달 입상(동)	
	스키점프	60위	10위권 진입	
	프리스타일	30위	메달 입상(동)	
	노르딕복합	50위	올림픽 참가	
세부 6종목			동2	
바이애슬론	남자	28위	메달입상(동)	
	여자	26위	5위권 진입	
세부 2종목			동1	
아이스하키	남자	23위	8강	12개국참가
	여자	24위	본선 1승	8개국참가
세부 2종목			-	



# ‘원 팀 코리아’는 강했다

##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발견한 한국 축구의 희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1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펼쳐진 호주아시안컵, 한국축구대표팀은 호주와의 결승전 연장 혈투끝에 1대2로 패했다. 55년만의 아시안컵 우승의 꿈이 또 한번 무산됐다. 후반 인저리타임 기적같은 동점골을 쏘아올린 손흥민(레버쿠젠)은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그라운드에 쓰러져 눈물을 펄펄 쏟았다. 120분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머리가 깨져도 좋을 만큼 튀어올라 공중볼을 다뤘고, 쥐가 올라온 다리로 골문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1대2 패배에도, 아쉬운 준우승에도 국민들은 뜨겁게 환호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 슈틸리케 감독은 “가슴속 깊이 우려나는 말이 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밖에 모른다던 독일인 감독이 열심히 연습해온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 슈틸리케 감독의 실리축구

대회 초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축구는 ‘늘 축구’라는 별칭을 얻었다. 번덕스런 날씨속에 손흥민 김주영 등 선수들이 몸살감기에 시달렸다. 조별리그 1차전 오만전에서 이청용(볼턴), 호주와의 최종전에서 구자철(마인츠)이 잇달아 부상하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포백라인 역시 킨디션 난조로 조별에선 매경기 라인업이 바뀌며 불안감을 자아냈다. 갖은 악재 속에도 슈틸리케호는 지지 않았다. 질 듯 지지 않는 축구, 상대를 높으로 몰아넣어 꾸역꾸역 이기는 축구에 팬들은 ‘늘축구’라는 별칭을 선사했다. 호주와의 조별에선 최종전에서 승리하며 조1위를 확정하는 순간, 구자철은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팀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다. 본선 토너먼트, 손흥민의 킨디션이 돌아오고, 광태휘-김영권의 센터백 라인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즈베크와의 8강전에서 연장승부 끝에 손흥민이 2골을 몰아치며 승리했고, 이라크와 4강전에선 이정협, 김영권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완승했다. 5경기 무실점으로 27년만의 결승행을 이뤘다.

‘늘축구’는 어느새 ‘실리축구’로 이름을 바꿨다.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우려 속에 슈틸리케 감독은 대다수가 고개를 갸웃하던 이정협, 조영철 등을 오프타이밍으로 썼다. 정성룡 김승규 김진현 등 골키퍼들의 무한 경쟁 속에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으로 김진현을 주전으로 선택했다. 공

격수는 골로, 골키퍼는 무실점 ‘슈퍼세이브’로 응답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라운드 상황에 맞춰 기성용, 박주호, 장현수, 광태휘 등을 위, 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넓히고 좁히며, 변화무쌍한 전술을 펼쳐보였다.

호주와의 결승전, 55년만의 우승을 향한 열망, 아시아 맹주로서 한국축구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소망은 간절했다. 후반 종료 직전 기적같은 동점골은 그 간절함의 결과였다. 연장 전반 통탄의 결승골을 내줬지만, 축구팬들은 승패와 무관하게 멈추지 않는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을 인정했다.

### 23세 미래 손흥민-김진수

‘23세 동갑내기 절친’ 손흥민과 김진수(호펜하임)는 대표팀 막내이자, 공수의 핵이었다. 젊은 패기와 뜨거운 투혼으로 거침없이 달렸다. 스타는 위기에서 빛난다. 호주와의 결승전, 동점골 순간은 ‘왜 손흥민인가’를 입증한 최고의 명장면이었다. 0-1 패색이 짙은 후반 46분, 호주 수비수들의 촘촘한 수비벽을 뚫어낸 기성용의 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의 왼발 슈팅이 골문을 갈랐다. 승부를 연장전으로 넘기는 기적 같은 극장골이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2골에 이은 3호골, 대한민국 아시안컵 통산 100호골을 쏘아올렸다. 레버쿠젠 에이스, 세계 빅클럽이 탐내는 대한민국 최고 공격수로서의 가치를 증명했다. 손흥민은 동점골 직후 펜스를 훌쩍 뛰어넘어 관중석으로 돌진했다. “이길게요. 꼭 이길게요.” 기적의 순간 손흥민이 팬들에게 외쳤다는 한마디는 경기 후 전설처럼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다.

‘왼쪽 풀백’ 김진수는 이번 대회 유일하게 전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다. 왼쪽 라인에서 헌신적인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 영리한 플레이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슈틸리케 감독은 김진수를 왼쪽 불박이 수비수로, 포지션 경쟁자였던 박주호를 수비형 미드필더, 왼쪽 윙어로 돌려쓰며 공존하게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8강전 연장전에선 상대의 볼을 뺏아낸 후 필사적인 크로스로 절친 손흥민의 결승골을 이끌어냈다. 호주와의 결승전, 엔드라인에서 장신 공격수 주리치와 몸싸움을 하다 결승골의 빌미를 내준 장면은 아픔이었다. 실수를 자책하는 김진수를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6경기 내내 그가 보여준 헌신과 투혼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팬들은 ‘괜찮아 김진수’라는 메시지로 축구청춘을 응원했다.



1월 31일 호주에서 열린 2015 AFC 아시안컵 결승전 대한민국과 호주 경기. 손흥민이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있다.

### ‘군데렐라’ 이정협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해 말 무려 4번이나 상주상무 경기장을 찾았다. 스트라이커 이정협을 보기 위해서였다. 부산아이파크 시절 이정기로 불렸던 이정협은 슈틸리케 감독이 불러주기 전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미완의 대기였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정협의 폭넓은 활동량, 박스안에서 골냄새를 맡아내는 감각에 주목했다. 지난해 12월 제주 전 지훈련 소집명단에 이정협을 불러내렸다. 이정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연습경기에서 골맛을 보더니,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카지 이름을 올렸다. 깜짝 발탁이었다. 박주영 김신욱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부재속에 이정협을 택했다. ‘군인 출신 신데렐라’라는 뜻의 ‘군데렐라’라는 애칭이 따라붙었다. ‘무명의 공격수’ 이정협은 슈틸리케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골로 증명했다. 대회 직전 호주 전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리더니, 아시안컵 본무대에서도 감독의 믿음에 보란듯이 화답했다. 호주와의 조별리그 최종전, 이라크와의 4강전에서 2골을 쏘아올리며, 1988년 이후 27년만에 아시안컵 준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 차두리 고마워

호주아시안컵 결승전 직후 각 포털 검색창에는 ‘차두리 고마워’라는 메시지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14년 정든 태극마크를 내려놓는 ‘차미네이터’ 차두리(FC서울)를 향한 팬들의 뜨거운

헌사이자 작별인사였다.

2001년 11월 8일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데뷔한 이후 2015년 1월 31일 호주아시안컵 결승전까지 75차례 A매치에 출전해 4골을 기록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2010년 남아공월드컵 첫 원정 16강의 위업을 달성했다. 마지막 아시안컵에서 띠동갑 후배들과 함께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다. 역대 아시안컵 최고령 출전이 무색하게, 체력, 기술에서 후배들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풍부한 경험과 소탈한 매너로 후배들을 이끌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도 거침없이 치고 달리는 투혼의 플레이는 절정이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연장전에서 아끼는 후배 손흥민의 썩기골을 이끈 ‘치달’ 킬패스는 명불허전이였다. 마지막 은퇴경기, 호주와의 결승전에서도 선발로 나서 연장혈투까지 120분을 뛰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두리삼촌’의 존재는 후배들에게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였다. 지난 14년간 단 한번도 멈춰서지 않은, 한 선수의 한결같은 헌신과 투혼에 팬들도 후배들도 일제히 고마움을 표했다.

차두리는 자신의 14년 대표팀 생활을 마무리하며 SNS 계정에 이렇게 썼다. “나의 마지막 축구여행은 끝이 났다. 비록 원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뛰어준 사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무한 감사를 보낸다. 나는 정말 행복한 축구선수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파이팅!”

글·전영지 스포츠조선 스포츠팀 기자

# ‘눈과 얼음의 대축제’ 제9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2월 25일 개막 ... 3822명 선수단 참가

제96회 동계체육대회(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해당중앙경기단체,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일원에서 열린다. 평창올림픽을 3년여 남긴 가운데 열리는 이번 동계체전은 동계종목의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과 전 국민에게 동계스포츠를 보급하고,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회로 열린다.

## 동계스포츠 붐업 신호탄

이번 동계체전에는 총 17개 시·도에서 임원 1190명과 선수 2632명 등 모두 382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지난해 대회 참가규모(3,666명)보다 156명 증가했으며, 서울 41명(711→752명), 경북 31명(188→219명)이 증가한 반면, 전북은 22명(317→295명) 감소했다. 종목별로는 아이스하키 55명(614→669명), 피겨 53명(281→334명)가 각각 증가했으며, 빙상 스피드는 19명(308→289명)이 감소했다.

개회식은 2월 25일(수) 오전 10시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며,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5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및 전시종목[스키점프, 프리스타일(모글)]이며, 아이스하키와 컬링 등 일부 종목은 2월 21일(토)부터 사전경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동계체전 기간에 대회 본부 및 질서대책부를 운영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동계스포츠 축제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 하는 대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아이스하키는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컬링은 인천 선학경기장, 피겨는 경남 울산과학대 아산체육관 실내빙상장, 스키는 강원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웰리힐리파크 세 곳에서, 쇼트트랙은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잠시나마 추위를 잊게 하고, 겨울스포츠의 진미를 감상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종합우승 14연패 도전

지난 1월 21일 시·도별 참가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각 시·도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출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종합 14연패를 노리는 경기도는 총 531명(선수 413, 임원 118)의 선수단을 파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온 종합우승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경기도선수단 최규진 총감독(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우리 도는 빙상, 스키 등 전 종목이 상위권의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96회 동계체전에서 도 종합우승, 14연패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종합 2위를 놓고 강원도와 서울이 치열한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평창올림픽 유치도인 강원도는 스키에서, 서울은 빙상과 아이스하키 등에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시선수단 정창수 총감독(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해엔 점수가 높은 아이스하키에 중등부가 참가하지 않았으나 올해엔 참가하는데다 초등부 최강인 드래곤즈팀이 우승을 확신하고 있어 강원도를 물리치고 2년 만에 2위를 탈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선 세계 최강의 쇼트트

시도별 참가 인원

구분	참가인원
서울	752
부산	213
대구	260
인천	178
광주	215
대전	101
울산	70
세종	26
경기	531
강원	401
충북	177
충남	82
전북	295
전남	182
경북	219
경남	105
제주	9
재일본	6

종목별 참가 인원

구분	참가인원	
본부임원	695	
빙상	스피드	289
	쇼트트랙	411
	피겨	334
아이스하키	669	
스키	알파인	315
	크로스컨트리	209
	스노보드	169
바이애슬론	274	
컬링	457	





랙 선수들의 각축장을 볼 수 있다. 심석희, 최민정 외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김선태 대표팀 감독은 “여 일반부 단거리에선 전 지수가, 장거리에선 이은별이, 여대부에선 김아랑이 각각 금메달이 유력하고, 남 일반부, 대학부는 초경합 상태이고, 남자 실력은 평준화돼 모든 종목이 예상 불허로 당일 컨디션이 변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 스키 알파인 전 종목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자기 고장이나 소속팀의 지도 선수로 출전해 높은 기량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용희 국가대표 감독은 “국내 1, 2위 정동현(하이원), 경성현(상무)을 비롯, 김우성(하이원), 김동우(한국체대), 조은화(연세대), 강영서(성일여고), 박혁(상무), 김현태(하이원), 박제윤(단국대) 등이 각 부별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차지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글·박성열 전 동아일보 부장

- 1 피겨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드 초등부 출전하는 서울 리라초교 그룹팀.
- 2 스키 경력 14년의 경성현 선수의 질주 모습. 작년 무릎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었으나 재작년 동계체전에서 4관왕에 올라 MVP로 선정된 바 있어 올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 3 쇼트트랙 남자초등부에 출전하는 유망주 홍준화(맨 앞·서울 리라초 5년)군의 레이스 모습. 이승훈 선배와 같은 훌륭한 선배의 대를 잇겠다는 각오다.
- 4 스키 알파인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왼쪽부터 김설경, 경성현, 김동우, 박제윤, 신복수, 김치, 정동현, 김현태, 박혁, 허승은, 김치, 조은화, 김소희)

### 경기일정

종목	종별	사전경기				본경기				경기장
		2.21 (토)	2.22 (일)	2.23 (월)	2.24 (화)	2.25 (수)	2.26 (목)	2.27 (금)	2.28 (토)	
빙상	스피드					○	○	○		태릉국제스케이팅장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울산과학대 아산체육관
	쇼트트랙					○	○	○		
	피겨					○	○	○	○	
아이스하키	초		○		○		○	○		목동아이스링크
	중					○		○	○	
	고			○		○		○		
	대				○	○		○	○	
스키	알파인					○	○	○		용평리조트 알펜시아경기장 웰리힐리파크
	크로스					○	○	○		
	스노보드					○	○	○	○	
바이애슬론	전종별					○	○	○	○	알펜시아경기장
컬링	전종별	○	○	○	○	○	○	○	○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중앙경기단체 및 경기장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도약한 한국 스포츠  
이제는 체육의 **국력화**에서  
**선진화**로 가자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

레슬링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 모습.



광복 70년은 우리나라 스포츠가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준 기간이었다. 스포츠는 지난 70년동안 줄곧 성장했다. 한국전쟁과 4·19 혁명, 광주민주화 항쟁 등 숱한 국내 정변과 사회혼란에도 위축되지 않고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해방 직후 가진 것 없는 척박의 땅에서 맨 손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스포츠는 아시아의 스포츠 후진국을 거쳐 아시아 스포츠 강국을 넘어 세계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반세기만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옥토를 일궈낸 것이다. 스포츠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력에 비교할 만큼 성공신화를 기록했다.

70년 동안 거둔 기록적인 성과물들은 우리나라 스포츠가 얼마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부수립을 하기도 전인 1948년 런던올림픽에 태극기를 앞세우고 처음으로 참가한 우리나라는 김성집이 역도에서 첫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가 건국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 이전까진 올림픽 은, 동메달에 그쳤으나 양정모가 첫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올림픽 금메달 국가로 본격 진입했다. 1984년 LA 올림픽서 본격적인 금메달 수확에 나선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서 세계종합 4위를 차지한 이후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 10위권 대열을 지켜나갔다.

동계스포츠서도 하계종목 못지않은 발군의 성적을 보였다. 세계 최정상급의 쇼트트랙 강세를 앞세운 우리나라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며 동계종목 강국의 면모도 보였다. 피겨 김연아를 비롯해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 등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력 뿐만 아니라 스포츠 외교력과 행정력에서도 세계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였다.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등 세계 3대 빅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미 유치해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치르는 국가로 올라섰다. 이러한 대형 세계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구상 200여 개 국가 가운데 단 몇 나라에 불과하다.

### 대한민국은 스포츠 선진국인가?

그럼 대한민국은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외형적인 성과로 본다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증거는 많다. 각종 스포츠 종합 성적 뿐 아니라 남을 따라 배우던 스포츠 경기력도 이제는 동남아 국가 등 스포츠 후진국에 지도자를 파견해 교육을 시키는 나라로 변신,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했다. 선수가 상품인 프로스포츠에서도 골프, 야구, 축구 등에서 미국과 유럽 선수들과 비싼 몸값을 겨룰 정도의 자본주의 국가형 스포츠구조를 갖추었다. 일반 국민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의 성적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프로 스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뜻있는 스포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의 금메달을 이끌었던 레슬링 대표팀 코치였던 정동구 한국체육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아직 우리나라 스포츠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여러 부족한 점을 시간을 갖고 착실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스포츠 선진국이 되기에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엘리트 종목에 치중하

는 체육 정책, 스포츠 환경의 개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후진성 등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체육입국'을 내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체육중시정책에 따라 본격적인 엘리트 체육 육성에 나섰다. 당시만 해도 북한에 뒤진 스포츠 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태릉선수촌을 개촌하고, 메달 유망주를 중심으로 대표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했다. 이는 소련, 동독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가 주도의 집중적인 훈련시스템을 운영해 성공한 것을 보고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서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에게 각종 포상금과 메달연금, 병역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4년 LA 올림픽 때부터였다. 유도, 복싱, 양궁 등에서 본격적인 금메달이 쏟아지며 우리나라는 일약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표선수들의 훈련을 국가가 통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전근대적인 국가들의 행태라는 것을 미국 등 서방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폐쇄적이며 자율성을 상실한 강압적인 훈련방식을 질타한 것이다.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선수들이 스스로 훈련하고 경기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임태성 스포츠포럼21 대표(한양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이 국가주의를 앞세워 체력의 국력화를 이끌었다”며 “선진국 스포츠가 되려면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훈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스포츠 환경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스포츠가 기본종목인 육상에서 역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단 두 명(황영조, 이봉주)에 그친 것은 낙후된 한국 스포츠 환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육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운동장과 시설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선수와 지도자가 부족한 탓이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단 하나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으며, 인천 아시안게임서는 36년 만에 노골드의 수모를 겪었다. 육상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도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는 셈이다. 스포츠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만큼 육상이 낙후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이라면 육상을 어릴 때부터 전 국민들이 즐기는 종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육상과 함께 기본종목으로 평가받는 수영도 육상만큼 열악하다.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도 변변한 수영장을 갖춘 곳이 없



고, 선수층도 극히 얇다. 서울 등 전국 주요 종합대학교에도 수영장 하나 변변히 갖춰져 있지 않고, 그나마 일부 수영장시설이 서울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동네마다 수영장 등이 즐비한 선진국과는 크게 대비된다. 인천 아시안게임서 고군분투한 박태환 이후를 받쳐줄 유망주를 아직 발굴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수영의 현실을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고생들의 학교 체육시간은 육상, 수영 등의 기본 종목을 가르치기 보다는 구기 종목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인 종목을 기피하는 것은 종목 자체가 재미가 없는데다 자기와의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저출산으로 복싱 등 격투기 종목을 하려는 선수가 줄어드는 것도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 수급에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시절 격투기로 성적을 올릴 때에는 크게 달라진 변화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격투기 종목에서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위축됐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은 한국 체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운동선수와 일반 학생이 따로 운영되는 학교체육은 한국체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운동선수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업을 전폐하고 경기력을 쌓는 데만 치중해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제



▲ 보루시아 뒤셀도르프 소속의 티모 볼(Timo Boll, 세계9위)이 유소년 탁구 선수와 함께 경기를 즐기고 있다. (사진출처, 보루시아 뒤셀도르프 홈페이지)  
 ◀ 독일 탁구에서 가장 성공한 탁구 클럽으로 인정받고 있는 보루시아 뒤셀도르프(Borusia Dusseldorf)의 유소년 클럽대회 모습.

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력과 성적위주로 뽑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운동에 매달려야하고, 선수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생계를 위해 팀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 승패에 연연하다보니, 심판 부정과 금품수수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태권도에서는 아들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불만을 품은 아버지가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생활체육 환경은 엘리트체육과 비교해 아주 열악하다. 서울 올림픽 이후 국민생활체육회가 발족하면서 여러 생활체육 정책 등을 시행하며 국민체육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지만 시설, 재정 등에서 많은 것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정서는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스포츠 선진국 국민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 새로운 혁신을 모색해야

이제는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구조적 인식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그동안 쌓았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틀을 철저히 다져야 한다. 즉 여러 가지 드러난 적폐는 해소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 육성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스포츠 선진국은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회적 구조와 국민들의 인식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체육학회 등은 한국 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과 대책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체육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진화를 위해 가장 맞는 모델로 독일스포츠클럽 시스템을 꼽았다. 독일이 스포츠 선진국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삼을 만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스포츠클럽에서 독일 국민들은 운동을 통해 자아의 행복을 추구하고 운동으로 조성된 자아의 행복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쟁력 있는 스포츠 국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시스템의 운영으로 동·하계 올림픽과 축구 월드컵에서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스포츠클럽 전문가 송석록 경동대 교수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근대화와 압축 성장에 성공한 독일은 다양하고 활발한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운영해 우리나라 스포츠가 따라야 할 롤 모델이라고 본다”며 “독일은 동네 스포츠클럽에서 연마한 선수들이 대표선수로 성장하고 전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20세기 후반 영국 법조의 신화적인 인물로 꼽히는 알프레도 데닝 판사는 “석탄을 파는데 삽이나 도끼가 오늘날 적합하지 않듯이 신시대의 자유를 영유하기 위해선 옛날의 제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스포츠가 체력의 국력화를 외치던 수십 년전의 국가스포츠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광복 70년 동안 우리나라 스포츠는 나름대로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 온갖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이겨내며 올림픽에서 힘들게 금메달을 획득하며 스포츠에서 선진국 문턱으로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 의지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옛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다가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스포츠 무대 경쟁에서 선진국의 꿈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퇴보할 수도 있다.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가 스포츠 선진국을 이룰 광복 10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

글·김학수 대한체육회 홍보위원/한국체대 교수

# 장충체육관

## 한국 체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다

지난 1월17일 약 32개월의 리모델링 공사 끝에 새롭게 태어난 '한국 실내스포츠의 요람' 장충체육관의 관중석 크기는 51cm다. 52년 전인 1963년 2월, 장충체육관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관중석 46cm보다 5cm가 커졌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인들의 몸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다. 커진 것은 한국인의 표준체형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올라섰고 스포츠 역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스포츠 분야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이어 2018년에는 동계 올림픽까지 평창에서 개최, 지구촌에서 3대 스포츠제전을 모두 연 6번째 나라가 된다.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 국가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5개국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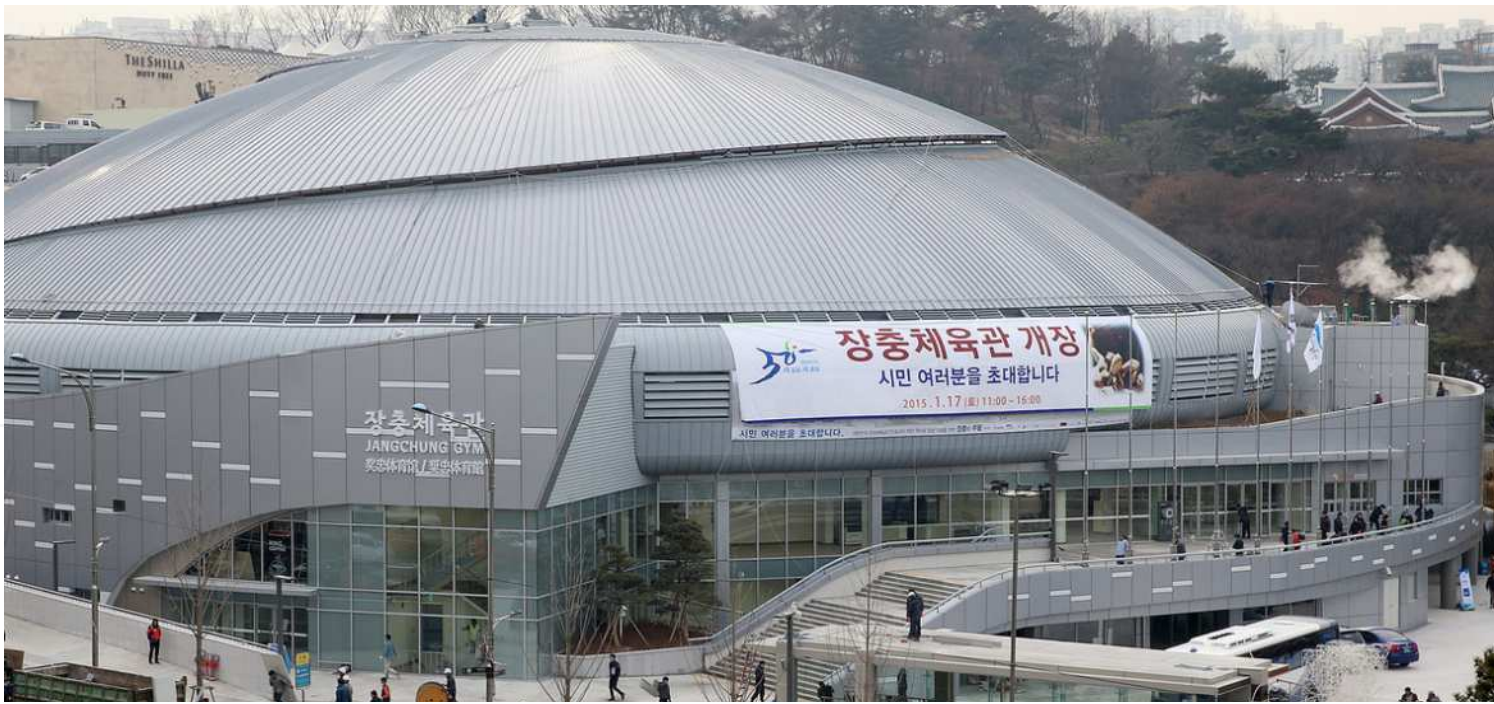
지난 50여 년 간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스포츠가 장충체육관 재개장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그릇을 키우는 양적 팽창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질적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32개월간 326억 원 들여 리모델링...지하철과 직결, 통행 편리

1월19일 GS칼텍스와 도로공사의 프로배구 여자부 경기에 이어 25일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열린 장충체육관은 오랜만에 만원관중을 끌어 모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개장 반세기만에 고품격 복합 체육 문화시설로 거듭난 장충체육관은 2012년 5월부터 리모델링 비용만 326억 원이 투입됐다. 공사기간은 약 2년 8개월. 기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385㎡) 건물이 리모델링 후 지하 2층, 지상 3층(연면적 1만1429㎡)으로 커졌다. 관중석은 총 4507석. 경기장 바닥 길이는 36m에서 47m로 늘어나 핸드볼 등 웬만한 실내 종목은 모두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으로 관중 통행도 편해졌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역에서 지하통로를 통해 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팬들을 위해 여자 화장실 비율을 높이고 수유실을 설치했다. 장애인 좌석과 가족석 연인석도 갖추었다. 흡음시설 음향시설 조명과 방송중계 설비 등으로 스포츠와 함께 다양한 공연도 진행할 수 있다. 지하 2층의 공간에는 우리나라 근, 현대 스포츠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사진 등 자료가 상시 전시된다.

### 체육관 부근 원조 족발집 등 경기 살아나는 'SAD 효과' 기대

스포츠 전문가들은 장충체육관의 재개장으로 체육관 주변의 경기가 살아나는 'SAD(Sports Anchored Development)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충체육관 근처에는 유난히 원조 족발집이 많아 경기가 있는 날에는 부근 족발집이 만원사례로 즐거운 비명이었다. 족발은 함경도 음식으로 6·25전쟁 후 실항민들이 영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즐겨 먹었다. '장충체육관에서 프로레슬링이나 농구 경기가 열릴 때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족발이 유명해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족발 골목이 형성됐다.'(서울 중구문화원 발간 중구향토사).

#### 김기수 등 스타탄생과 '체육관 선거' 오점 남긴 영욕의 무대

장충체육관은 스타 탄생과 함께 '체육관 선거'의 오명도 남긴 영욕의 무대. 1966년 6월 프로복싱 김기수가 한국프로복싱 사상 처음으로 세계챔피언에 등극했고 1967년 4월에는 '박치기 왕' 김일이 프로레슬링 세계 헤비급 왕좌에 올랐다. 1975년 5월 '3전4기'의 주인공 홍수환이 프로복싱 세계 타이틀을 되찾았으며 1983년 4월 이만기가 제1회 천하장사 타이틀을 따냈다. 같은 해 12월에는 농구대잔치, 1년 뒤에는 배구 슈퍼리그가 각각 출범한 곳도 장충체육관이다. 1988년 9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올림픽 유도에서는 60kg급 김재엽과 65kg급 이경근이 잇달아 금메달을 따 한국이 최초로 올림

픽 유도 종합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선출했다. '체육관 선거'는 1979년 박 대통령 서거 이후 최규하 대통령(10대), 전두환 대통령(11대)까지 3차례 이어졌다.

#### 서민들 애환 서린 추억의 현장...고품격 체육 문화 공간으로

장충체육관은 이밖에 공연장 역할도 톡톡히 했다. 1966년에는 미국 팝 가수 팻 분이 내한 공연을 했고 1989년, 1992년에는 대학가요제가 열리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마당놀이 공연장으로도 애용됐다.

장충체육관은 이제 운동 경기만 열리는 체육 시설을 넘어 고품격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중요한 건 크고 편리해진 시설뿐만이 아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추억의 장소가 그대로 남아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란 점이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역사의 현장, 장충체육관이 한국스포츠 제도약의 발판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글·이중세 스포츠동아 이사/웅인대 객원교수



골프 국가대표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투어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플레이오프 끝에 미국에 승리한 후 태극기를 두르고 포즈를 취한 한국대표팀. 왼쪽부터 박인비, 김인경, 유소연, 최나연(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 112년 만의 올림픽 금메달 보인다

## 세계 호령하는 한국 여자골프



글 이순숙  
한국골프미디어협회 회장  
골프헤럴드 발행인

한국 골프역사가 120년 가까이 흘렀다. 척박했던 초창기 골프 환경을 떠올리면 그동안 한국 골프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놀랍기만 하다. 제대로 된 골프장 하나 없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500여 개의 골프장에 470만 명에 달하는 골프 인구, 5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미국 프로 무대(PGA, LPGA)를 주름잡는 골프 강국이 됐기 때문이다.

2015년 새해 벽두부터 골프계의 관심은 올 10월 타이거 우즈, 어니 엘스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리는 '별들의 잔치' 프레지던트컵 골프와 내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골프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가에 쏠리고 있다. 특히 리우 올림픽 골프는 112년 만의 정식종목 복귀여서 골프팬 다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골프는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까지 두 번 열렸으나 이후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져 1세기 이상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 골프, 112년 만에 올림픽 복귀...아시아 최강 한국의 선전 기대

지난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골프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하였다. 2006 도하아시안게임과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이어 4개 전 종목 3회 연속 석권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여자 개인종목에서 우리나라 박결이 태국 선수를 제치며 금빛 메달을 국민들의 품에 안겼다. 한국 여자골프가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아시안게임 개인종목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남자부는 대만에 밀려 개인, 단체 종목 모두 은메달에 머물렀다. 현재 대한골프협회는 허광수 회장이 아마추어 선수권자 출신으로 역대 어느 회장보다 선수들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경제적 뒷받침으로 스타플레이어의 발굴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수지원을 위한 상금 포상제 및 선수 후원기금으로 20억 원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리우 올림픽 메달권 진입을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 코리아 우먼 골프 파워 막강...정부 언론 골프팬들의 성원 절실

금세기 들어 우리나라 선수들은 세계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 여자골프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박인비를 비롯 6위 김효주, 8위 유소연 등 10위 안에 3명이 들어갈 만큼 성장, 코리아 우먼파워를 전 세계에 알리며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또 유망주 백규정, 허윤경, 전인지, 안선주, 장하나, 김하늘 등이 차세대 스타로써 국민들에게 골프를 통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남자골프 역시 배상문, 노승열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김승혁, 박우현 등도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척박한 국내 인프라 속에서 꽃 피워온 골프역사는 어렵고 힘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그 가치와 의미도 더해주고 있다. 하나의 선수를 키워내고 육성하는 책임을 가진 협회의 역할과 골프 산업 관계자 및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골프 팬들의 열화와 같은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골프계가 본연의 임무와 본질을 되찾아 다시 한 번 비상(飛翔)하길 바라며, 골프를 건전한 스포츠 문화로 대중화하는데 정부의 새로운 인식과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골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골프가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여 470만 골프 팬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리우 올림픽 골프에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금메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



김효주



## 유준상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롤러스포츠, 남북 화해 가교되길”

“롤러스케이팅은 역동적이고 스티일이 있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웰빙스포츠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은 물론이고 올림픽 정식종목이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대한롤러경기연맹 유준상 회장(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의 ‘롤러 자랑’은 그침이 없었다. 우리나라 롤러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아시아연맹 수석부회장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에서는 ‘롤러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유 회장의 각별한 ‘롤러 열정’을 들어본다.



올해로 롤러연맹을 이끌어 오신지 7년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느끼신 점이나 연맹 운영에 중점을 두신 부문이 있으시다면. 2009년 롤러연맹을 맡았을 때 스티일 있고 역동적이며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이런 스포츠가 올림픽 종목이 되지 못했다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아시안게임, 비올림픽, 비인기종목으로 선수 육성, 대회 운영, 연맹 재정 등 각 부문에서 많은 장애들에 부딪쳤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스피드 종목에 슬라럼, 인라인하키, 피겨를 종목으로 편입해 종목을 다양화해 롤러스포츠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덕분에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손근성, 우효숙, 안이슬이 각각 금메달을 따내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차지하는데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걸출한 스타가 탄생하는 등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어 아시아롤러연맹 수석부회장으로 연임이 되었는데.

2010년 아시아롤러연맹(CARS) 회장단 선거 때 회장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들이 뭉쳐있어 부득이 방향을 바꾸어 부회장에 나서 최다득표를 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각 부회장들은 각각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저는 아시아안게임 종목 채택과 신규 회원국 모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국인 회원국을 2018년까지 24~25개국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17개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스포츠어코드에 국제롤러경기연맹(FIRS) 올림픽 특별위원회 위원 6명의 대표 가운데 한사람으로 롤러스포츠의 올림픽 종목 채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롤러스포츠 수준은 세계 톱클래스입니다. 제16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우리가 종합 2위를 차지했고 2014년 세계선수권에서는 여자주니어선수단이 금메달을 따내는 등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IMF를 전후로 롤러의 인기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주니어 자원 층이 두텁지 못해 어렵습니다. 이처럼 외부요인이 녹록치는 않지만 국내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국제대회도 유치해 선수들이 미래의 꿈을 펼치고 다지는 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7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셨는데.

여수, 창원, 청주를 놓고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개최 도시를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열릴 예정인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단순히 대회로만 치르지 않고 국내외 참가자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롤러 스포츠가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구나”하는 것을 보여 주는 ‘롤러스포츠 페스티벌’로 치르고자 합니다. 2011년 여수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치른 경험도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은.

2018년 자카르타아시안게임에서 재입성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알사바 회장과 만나 긍정적 답변을 받았고 개최국 인도네시아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2020년 도쿄올림픽에 3번씩이나 후보종목으로 선정됐지만 정식종목 채택은 되지 못했습니다. 세계무대에서의 인지도와 각국의 이해타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이지만 2014년 제1회 유스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열리는 등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곧 정식종목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계롤러스포츠 제전에 대해.

국제롤러경기연맹이 2017년부터 롤러스포츠의 국제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 5대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세계 5대 도시는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해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입니다. 제2의 롤러스포츠 붐을 일으키고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 올림픽에 진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평소 당부하는 말은.

성실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까지 페어플레이하는 모습,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신력은 삶에도 필요한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임기 중에 이루고 싶으신 일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17개 시도에 실업팀이 있고 경기장도 극히 일부만 빼고는 다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평양과 개성에 돔구장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롤러입니다. 우리 롤러스포츠가, 그리고 롤러스포츠를 통해 남북대화나 남북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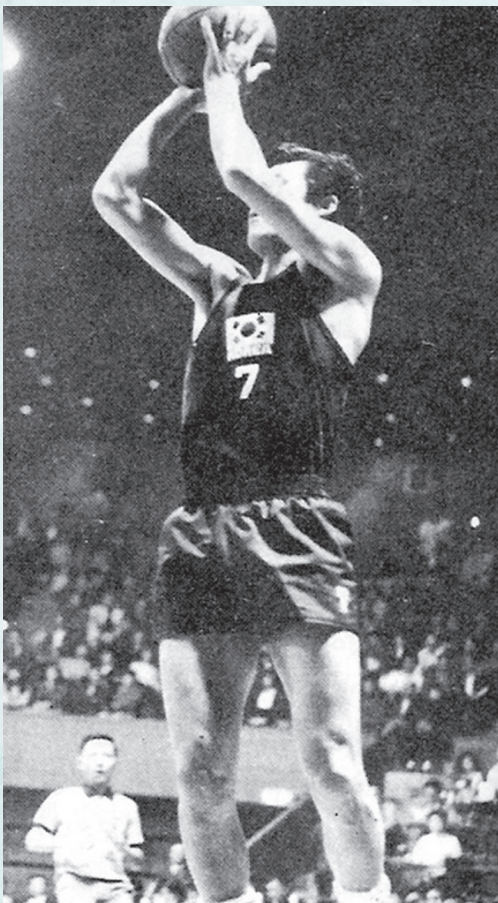
글: 정태화 대한체육회 홍보위원/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유준상 회장과 인터뷰 뒷이야기

스포츠와의 첫 인연은 고려대 동기인 고 이상철 전 한국체육대학 총장의 권유로 대한레슬링협회 이사를 맡아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고 일본에 한 달 동안 전지훈련을 간 4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이 열리기 2년 전인 1974년이였다. 그 뒤 4선의 국회의원(1981년~1996년)을 지낸 뒤 2008년 대한올림픽위원회 회장, 2009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선임되면서 체육단체장으로 복귀했다. 2009년 대한체육회, 2012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쓴잔을 듣기도 했던 유 회장은 “이왕 체육계에 몸을 담았으니 열정적으로 체육계를 이끌어 가고 싶었다”는 게 출마의 변이다. 광주고~고려대 시절 대표급은 아니지만 유도와 배구를 했고 65살에 뒤늦게 마라톤에 심취해 “내 인생의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다”는 책을 쓴 마라톤 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마라톤 대회 완주는 물론이고 하프마라톤 완주만도 100회에 이르고 100km 울트라마라톤도 된 경험 이 있다. 특히 2013년 12월에는 인천 아라뱃길에서 부산 하구쪽까지 633km를 15일만에 주파하기도 했다. 손자와 함께 배운 롤러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자평한 유 회장은 “남북통일이 되면 마라톤이나 롤러를 타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220km를 달려 통일 한국의 초대 평양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히기도. 열릿 50대 초반이 아닐까 할 정도로 탄탄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유 회장은 올해 73세(1942년 생)로 2010년 인터넷 보안전문가 양성기관인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을 맡아 지금도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 ‘백발백중’ 한국농구 전설의 슈터

## 신동파



‘스포츠코리아’에 글을 신게 돼 다행이다. 다른 지면이었다면, 신동파를 이야기 하며 그가 누구인지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도입부를 시작해야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젊은이들에게 신동파를 ‘한국의 마이클 조던’이라 비유하면 ‘정말? 그게 누구데?’ 하는 답이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팍팍한 일인지! NBA(미국프로농구) 계보를 줄줄 꿰는 농구 광팬이라 할지라도 정작 ‘신동파’ 하면 고개를 가우뚱하는 게 요즘 한국농구 관중석 현실이다. 허재는 그들에게 신이고, 이충희는 전설이지만 김영기·신동파는 인터넷 검색을 해야 하는 기억 너머 이름이다. 하지만 적어도 체육인이 주 독자인 이 잡지에선 신동파에 관한 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부르지 않아도 될 듯하다.

### 깔끔한 열정, “두 곳 다 욕심낼 수 있나?”

신동파(72)는 1974년 현역은퇴(31세) 후 기업은행 감독으로 있다가 이듬해 창단 여자실업농구팀인 태평양화학 감독으로 옮긴다. 이를 말리기 위해 당시 기업은행은 임원 합의사항으로 그에게 파격적인 특별 제안을 했다. ‘태평양화학은 여성 팀, 기은은 남성 팀이니 양쪽에서 농구를 가르치는 걸 허락한다. 기은 감독 직은 유지해도 좋다’는 것이었다. 기은 전임 감독이자 평생 선배인 김영기(80·현 KBL 총재)가 이 제안을 전했다. 신동파는 그것을 거절했다. 이유는 이렇다.

“기업은행은 국내 최고 팀이고 거기서 저를 알아주는 게 영광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두 군데서 월급 받잖아요. 제 성격 상 두 곳에 열성을 분산시킬 수 없어요. 운동선수로서 욕심을 최대화하되 그걸 하나에만 꾸준히 집중시켜야 성과가 나와요.”(2015년 1월 18일, 전화인터뷰)

신동파는 스케일이 크기보다 깔끔한 이미지다. 하지만 집중력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각고(刻苦)한 깔끔함이지 거기 투여된 노력, 열성, 욕망까지 소심한 것은 아니다. 신동파가 맡았던(1975~1991년) 태평양화학은 박찬숙, 홍혜란 등을 배출하며 오랫동안 국내 여자농구 무적함대로 군림했다.

### 입지(立志), 철차탁마, ‘내 세상’을 열다

신동파는 이후 남자실업 SBS농구팀 창단감독(1991년·48세)으로 자리를 옮긴다. 평생 두 차례 이직을 모두 신생팀으로 했다. 꺾다리(190cm)에 말라깽이, 미남, 동료가 만든 찬스를 백발백중 성공시키는 책임감, 코트의 모범생, 엘리트, 스캔들 없는 슈퍼스타, 신사 등. 그러나 신동파의 이런 인상 뒤엔 미완(未完)에 대한 도전을 좇는 일가(一家)의식, 자신이 시도한 것을 결정(結晶)시키는 단단함이 있다. 운이 좋은 것은 소분지 일이고 제 영역에 대한 열망과 이루려는 노력은 대부분이다. 신동파를 신동파로 만든 것은 천부적 슈팅감각 뿐 아니라 그같은 독자 의식의 결과다.

“김(영기) 선배와는 대표팀에서 3년 동안 같이 뛰었다. … 1965년 제3회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를 끝으로 김 선배는 농구코트를 떠났다. 김 선배가 은퇴하고



나니 왜 그리도 시원한지. 이젠 내 세상이다 싶었다.”(‘살아 있는 농구교본 김영기다’, 조선일보 1997년 9월19일자, 신동파 기고)

“외곽슛을 장점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다. 그래서 팀 훈련이 끝난 뒤 꼭 개인 운동을 했다. 처음에는 하루 400~500개씩 매일 슛을 던졌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계속했다.”

(‘SPORTS 2.0’ 제 60호, 2007년 7월16일자, 류한준 기자 인터뷰)

신동파는 지금 선수로도 장신이지만 1960~70년대 농구 팀에선 거의 최장신이었다. 골밑 센터를 포함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었겠으나 그는 농구 입문 2년째인 휘문중 2학년(1958년·15세) 때 이미 ‘외곽 슈터’로 자신을 설정한다. 슈팅은 패스와 드리블, 리바운드, 경기조율 등 모든 과정을 응축시킨 농구의 마침표다. 일찌감치 이 결정적인 역할을 자임한 당돌한 휘문중학교 농구부원은 매일 수백개의 공을 던지면서 7년 후 선배 김영기 은퇴를 계기로 그와 공유하던 ‘1인자’ 자리를 홀로 접수한다. 이른 입지(立志), 긴 기다림 후 마침내 ‘내 세상’을 구획한 그의 소감은 ‘시원하다’였다. 그는 외아들이다. 코트에서도, 인생에서도 독자적인 스포트라이트에 익숙한 이로서 조역보다 주인공, 그 중에서도 1인자를 달성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 ‘죄송합니다’ 소년, ‘신사수’(神射手)가 되다

신동파는 휘문고 3학년(1962·19세)년 때 고교 농구대회 한 경기 최다득점(57점) 기록을 세우고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고등학생이 농구 국가대표로 뽑힌 건 이때가 처음이다. 1970년 유고 세계농구선수권에선 8경기 총 261득점, 대회 득점왕과 함께 경기당 평균 32.6점(슛 성공률 80.4%)으로 세계선수권 사상 FIBA(국제농구연맹) 역대 2위를 기록한다. 농구가 생긴 이래 미국인을 포함, 전 세계 수많은 슛장이 중 신동파가 두 번째로 잘 던진다는 공인이다. 당연히 그는 아시아 농구의 신이기도 하다. 그가 1969년 제5회 방콕 ABC(아시아농구선수권) 필리핀과의 결승에서 혼자 50득점, 한국 우승을 이끌자 필리핀 신문은 ‘신동파를 멈출 수 있는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썼다. 대만에선 그를 ‘신사수’(神射手=슈팅의 신)라고 불렀다. 그가 어떻게 이런 경지에 올랐나.

신동파의 농구 멘토는 셋이다. 중·고 4년 선배 최영식(전 대한농구협회 사무국장)은 휘문중학교 1년 신입 농구부원 신동파에게 체력·패싱·드리블 등 기초를 가르쳤으며 휘문중 코치 신봉호(전 기업은행 감독)는 중3짜리 꼬나무 신동파를 후일 그의 평생 자랑이 된 원 핸드 슈팅의 길로 이끌었다. 그리고 김영기. 그는 선수, 지도자, 인간 신동파를 만들었다. 신동파는 중 2학년때 휘문중에 연습경기차 온 스타 플레이어 김영기(당시 공군 농구팀)의 경기를 보고 단박에 매료된다. '김영기 같은 선수가 되겠다'는 강한 동기부여는 이후 '그 같은 지도자', '그 같은 인간'으로 변하면서 평생을 간다. 1964년 도쿄 올림픽 남자 농구에서 한국이 16개국 중 꼴찌(9전9패)를 하자 '하필 일본에서'라며 울던 주장 김영기 곁에서 막내 신동파도 함께 울었다. 둘은 지도자와 선수로 기업은행, 국가대표에서 같이 뛰었으며 한국농구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정상에 오른 1969년 방콕 ABC 우승과 1970년 아시안게임 우승 감격을 함께했다.

*에피소드 하나. 신봉호 코치의 충고로 중3 말부터 원 핸드 슈팅 연습을 시작했으나 워낙 3년이나 두 손으로 하던 걸 한 손으로 던지다보니 힘도 각도도 삐뚤뚤공은 아예 림에 못 미칠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겨울합숙*



2014-2015 프로농구 올스타전 이벤트 경기에 나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신동파 전 농구협회 부회장이 1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 보조체육관에서 자유투를 던지고 있다.

*소에서 피곤에 떨어져 자던 신동파가 '죄송합니다'를 연 발하더니 갑자기 '나이스 샷!' 외치며 별떡 깨어나 동료들을 놀래켰다. 꿈에서 공 수백 개가 계속 빗나가 골밑에선 신 코치에게 미안해 하던 차에 결국 한 차례 넣었던 것이다. 이후 동료들은 그를 '죄송합니다'로 불렀다.*

(일간스포츠, 1974년 1월 10일자)

## 여기 90개 이상 들어가는 선수가 누구야?

외곽 슈터로 뜻을 세운 이래 신동파는 중, 고등학교 때 매일 하루 400~500개 씩 개인 슛 훈련을 했다. 대학 때는 200~300개로, 실업 때 100개로 줄였는데 이처럼 줄인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각 유지만으로 슛 정확도가 보장됐기 때문이다.

실업 시절 개인 연습은 어떻게 했다.

“골대 앞 6~7m(요즘 3점 슛 라인) 선상에서 반원형을 그리며 움직여 하루 100개 씩 던졌다. 평균 93개 이상 넣었고 87개 연속 성공시킨 날도 있다. 88번째 실패하고 다시 골인시켜 그날 100개 중 99개를 성공시켰다. 99%. 그게 연습 최고 기록이다.”

자유투는 어땠나?

“마찬가지지.”

성공 비결은?

“감각과 기술이 안정된 다음엔 마음을 비워야 한다. 부담도 자신감도 벗은 상태라 할까. 하지만 무척 어렵지.”

1969년 ABC 결승에서 혼자 50점 잡았는데 3점 슛이 인정되는 요즘 같으면 몇 점이나 올랐을까?

“글쎄, 한 80점 가까이? 그날 야투 실패는 5개였던 걸로 기억된다.”

요즘 한국 농구 득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잖나. 프로경기조차 점수가 안 난다. 야투 성공률 낮고 프리드로 안 들어가고, 관중 줄고, 그래서 우리 더 안타깝고 농구인으로서 정말 안타깝다.”

(2015년 1월 18일, 전화인터뷰·경어 생략)

대표팀 격려차 지난 2013년 진천 선수촌을 찾은 신동파가 유재학(53) 감독에게 물었다. “여기 12명 중 슛 훈련할 때 90개 이상 들어가는 선수가 누구야?” “없습니다. 제일 잘 넣은 조성민이 80개, 나머진 60~70개 정도입니다.” 다행히 대표팀은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했다. 하

지만 그 2주전 스페인에서 벌어진 농구월드컵(전 세계선수권)에선 23위(5전5패) 했다. 16년만에 아시아 예선을 통과해 본선을 밟았다지만 그래도 저조한 건 사실이다. 신동파가 출전했던 1970년 유고 세계선수권에선 11위 했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11위와 23위. 그 간극엔 슛 연습 성공 '93개 vs 80개'의 차이가 없을까. 비전문가의 단순 비교 오류이길 바란다.

### ‘신동파!’, ‘동파 룬’, ‘신동 PAR!’

‘신동파’ 하면 필리핀을 빼 놓을 수 없다. 필리핀에 농구는 브라질 축구나 마찬가지로. 1950~60년대 아시아 최강이고 요즘도 강촌 어디서나 맨발 맨땅에서 농구공 튀기는 소리가 상쾌한 나라다. 아나운서 이광재가 라디오통에서 고성 흥분하던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1969년 방콕 ABC 대회를 TV 생중계했다. 신동파 등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을 꺾자 필리핀 국영방송은 이 대회를 6개월간 수시로 녹화 방송했다. 이후 신동파는 필리핀의 신이 됐다. 빵집도, 자동차(=‘지프니’)도 신동파 이름을 달았고 한 유명배우는 별장 제일 좋은 방을 ‘동파 룬’이라 이름 지었다. 행운,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필리핀 사람은 요즘도 ‘신동파!’를 주문(呪文)한다. 허진석은 알래스카 바다 위 7만7천톤 짜리 크루즈 배에서 필리핀 승객들과 농구하다 그들이 슛을 성공시킬 때마다 ‘신동파!’ 외쳤음을 적고 있다(허진석, 《득점기계 신동파》).

나도 마닐라 인근 골프장에서 한 필리핀 동반자가 7m짜리 장거리 퍼팅 성공 후 ‘신동파!’ 하는 것을 들었다. 그게 ‘신동 파(par)’로도 들렸다. 한국과 달리 필리핀에선 20~30대 신세대도 신동파를 안다. 그들 조부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이다. 신동파도 자신을 사랑하는 필리핀을 사랑한다. 거의 매년 필리핀에 가며 현지 농구대회 시투도 한다. 한 번은 필리핀 기자가 물었다.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서 농구하고 싶으니까?” 신동파가 재치있게 답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필리핀에서 농구하고 싶다.”

### 프로라도 태극기 달고 울어봐야 한다

신동파는 4년 전 작고한 아버지 신려철과 어머니 이덕선(93)의 외동아들. 1944년 함경남도 안변 생이지만 두 살 때 일가족 서울로 와 휘문중-휘문고-연세대를 다녔다. 자신은 1971년 결혼한 부인 이연일(70)과 사이에 2녀1남을 뒀다. SK그룹 계열사 과장인 막내아들 신주용(38·186cm)과 딸들도 전부 장신이지만 농구를 시키지 않았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의 초등학교 농구코치가 강력히 권유했지만 제가 그분을 찾아가 ‘농구 못 시킨다’ 말렸어요. 뭐, 어찌 어찌 하면 선수 되고 온 좋으면 국가대표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톱 오브 더 톱’은 힘들어요. 정상을 달릴 수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펍 신동파다운 이유다.

그는 선수, 지도자 외에도 대한농구협회 이사, 부회장, 국가대표운영위원장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아시아농구연맹 공로패를 받고 손을 흔들며 환호에 답례하는 신동파 감독.

등 두루 행정을 거쳤다. 지금은 ‘아이들이 예뻐서’ 초등학교농구연맹 부회장만 맡고 있다. 선수 시절 어깨를 혹사한 탓에 요즘 팔이 잘 올라가지 않지만 그것만 빼곤 건강하다. 일주일에 한 차례 매주 화요일 등산한다. 진짜 취미는 바둑(아마추어 4단)이다. 기력이 비슷한 김정남(73·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국가대표 태릉 합숙 시절부터 밤 새워 바둑을 뒀다. 최근 둘은 유선 바둑TV에서도 맞수로 겨뤘다. 신동파가 불계승 했다. 마지막으로 물었다.

요즘 한국 농구 어때요?

“프로화 이후 국제 아마추어 경기에서 감동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몸이 연봉’이라지만 프로들도 일생 몇 번 짬은 태극기 달고 울어봐야 해요. 대표 선발 기피하고 아시아권에서도 간신히 3위 턱걸이 하는 걸 보면 화가 막나요.”

한국 농구에서 신동파 위치는 ‘청년’ 아니면 ‘무명’이다. 신세대들이 그를 모르는 반면 장년들은 고희 넘긴 신동파를 아직도 청년으로 기억한다. 한국 농구는 이 두 점 사이에 수십 년째 진보도 퇴보도 없이 머무른 듯하다. 그래서 또 한명의 ‘신동파!’가 지금 그립다. ☹️

글 임용진 전 중앙일보 기자



# 스포츠에이전트, 왜 필요한가

##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정착 포럼 후기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스포츠법 커뮤니티가 주관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정착 포럼’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열렸다. 정부, 대한체육회, 체육단체, 관련 기업, 학계 관계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글·강래혁  
변호사 / 대한체육회 법무팀장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정착 포럼’에서는 스포츠에이전트 제도 시행과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 선수, 팀, 구단, 협회 등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음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이다.

### 스포츠에이전트 제도의 당위성

제1주제발표를 맡은 김도균 경희대학교 교수는 스포츠에이전트의 4가지 주요 역할 ① 연봉 협상 및 계약 ② 마케팅을 통한 선수 수익 증대 ③ 선수홍보 ④ 법률 및 회계자문을 설명하였다. 김 교수는 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하여 “한 명의 선수나 구단 리그의 발전이 아니라 전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선수로서 권익을 보장받고 함께 윈윈 생존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로 나선 스포터즈 심찬구 대표는 그 동안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원인으로 무형의 지식기반에 대한 사회적인 몰이해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시장 기반 성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진 프로스포츠 주체들의 동기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가가 모든 룰의 제정, 운영의 주체가 되려하기보다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감리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선수에 헌신하는 에이전트 마음가짐 필요

제2주제발표를 맡은 전근표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사무국장은 “구단은 프로야구 시장에서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면 선수들의 연봉 인상 등으로 구단의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구단의 선수에 대한 구속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면 불합리한 선수와 구단 간의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한 프로야구 시장 형성이 가능하고 야구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워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토론한 이운재 2016 리우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코치는 “프로축구는 이미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에이전트의 부당한 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선수도 종종 나온다. 비윤리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수는 돈보다 땀 수 있는 그라운드가 중요하고 필요할 때가 더 많다”면서 선수에 헌신하는 에이전트의 마음가짐을 말하여 청중들의 공감을 받았다.





### 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제주제발표자 법무법인 율촌의 이윤남 변호사는 현행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국내 프로단체 규약의 내용과 문제점, 미국 에이전트 제도 등을 설명하고, 한국형 에이전트 제도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① 부당접촉 방지규정 도입 ② 표준 에이전트 계약제도 도입 ③ 수수료 제한 규정 도입 여부 ④ 에이전트의 복수의 선수 대리 인정 ⑤ 이해상충대리 금지 및 정보제공의무 ⑥ 자격미달 에이전트 난립 방지 등 6가지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로 나선 필자(대한체육회 법무팀장 강래혁 변호사)는 에이전트 제도 도입 시 초기에는 프로스포츠에서 활성화되고 순차적으로 엘리트 스포츠에서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며, 과도한 에이전트 활동으로부터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학생 선수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에이전트 등록, 교육, 징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연맹 또는 협회에 맡길 것인지 선수협회에 맡길 것인지 제3의 기구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포츠에이전트는 마케팅 파트너다

제4주제발표를 맡은 IB월드와이드 김영진 본부장은 “대기업이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프로야구 현실상 소속 선수가 다른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거나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면서 “구단과 연맹은 스타선수 한 명이 해당 종목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이전트를 마케팅 파트너로 받아들여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이용욱 사무관은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에이전트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만, 프로스포츠 시장은 사적인 영역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규제보다는 에이전트 육성 차원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열린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에이전트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맹, 구단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용욱 사무관은 구단의 경기장 활용을 통한 스포츠산업 기반을 마련하면서, 스포츠투토 배분기준의 성과지표 개발, 마케팅 순위 발표 등을 통해 종목 간 또는 구단 간 경쟁을 유도한다면 구단들의 협조 아래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심찬구 대표는 구단주인 대기업들이 1위를 위해 승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권익보호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선수대리인(에이전트)을 양성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12월 8일 2001년 시정명령에도 현재까지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선수는 돈보다 될 수 있는 그라운드가 중요하고 필요할 때가 더 많다”는 이윤재 코치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조속히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



## ‘김연아 키즈’ 박소연 다음 목표는 4대륙대회

스포츠의 감동은 1년 365일 매 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선수들이 쉴 새 없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어우러져 멋진 승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싸움을 이겨낸 선수들이 ‘진정한 승자’로 거듭나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이런 스포츠의 감동과 재미를 더해주는 또 다른 요소가 스포츠 스타들과 관련된 ‘말말말’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애환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와 팬들을 소통하게 하고 더 가깝게 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특특] 코너에서 스포츠 스타들의 멋진 ‘말말말’을 모아봤습니다.

글·심재희 더팩트 스포츠팀장

‘제2의 김연아’ 박소연 선수가 다음 목표로 ‘4대륙 대회’를 정조준 했습니다. 박소연 선수는 지난 1월 9일 끝난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15(제69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싱글 부문 정상에 올랐는데요. 쇼트 프로그램 60.40점 프리스케이팅 113.99점 합계 174.39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 후 그는 “지금까지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을 못했는데 정말 기쁘다. 첫 우승이라 더 의미 있는 것 같다”라고 감격의 소감을 밝힌 뒤 “4대륙 선수권대회를 잘 준비해서 좋은 연기를 하고 싶다”며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2015 ISU(국제빙상연맹)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는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목동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박소연 선수가 자신의 희망처럼 4대륙대회에서도 멋진 기량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최재우 “연습한 대로 경기해 좋은 성적 나왔다!”

‘한국 모굴스키 간판스타’ 최재우 선수가 한국 스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최재우 선수는 1월 펼쳐진 미국 유타 주의 디어밸리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시리즈 3차 대회 프리스타일 싱글 모굴에 출전했는데요. 예선을 4위로 통과한 뒤 16명이 겨루는 결선 1라운드에서 79.97점으로 5위를 차지하며 6명이 겨루는 결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선 2라운드에서 82.73점을 기록하며 4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스키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4위에 오른 것은 최재우 선수가 처음이었는데. 그는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긴장하지 않고 평소 연습한 대로 경기에 나섰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최재우 선수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이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 양하은 “난 끊임없이 공부하는 노력형”

한국 여자탁구의 대들보로 성장한 양하은 선수가 2015년 더욱 발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하은 선수는 <더팩트>와 신년인터뷰에서 2014년을 되돌아 보고 2015년 목표를 밝혔는데요. “저는 노력형이다. 어머니도 탁구 선수였고 밥 먹다가도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 탁구 생각을 일상에서도 많이 한다”며 “잠시만 탁구 생각을 안 해도 잘 안 된다. 매번 생각을 하고 쳐야 한다”고 탁구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양하은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는데요. 그는 “올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잘해서 세계 대회에 나가고 싶다. 아시아선수권대회도 있고, 올림픽도 다가온다. 정말 열심히 해서 랭킹을 끌어올리고 싶다”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스스로 ‘천재형’이 아닌 ‘노력형’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 양하은 선수가 2015년에도 더욱 성장해 월드스타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 페더러 “1000승은 정말 특별한 기록”

스위스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선수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개인 통산 1000승을 달성했습니다. 페더러 선수는 지난 1월 11일 펼쳐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ATP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단식 결승전에서 밀로스 라오니치 선수를 세트 스코어 2-1로 제압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대망의 ATP 투어 1000승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경기 후 그는 “1000승은 정말 특별하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경기를 치렀기에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1000승은 내게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한다. 1000승을 확정하 오늘 경기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기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현재 ATP 투어 최다 승은 미국의 지미 코너스 선수가 가지고 있는 1253승인데요. 과연 페더러 선수가 최다승 고지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유도 안창림 “귀화 제의 뿌리치고 태극마크 도전”

남자 유도 73kg급의 안창림 선수가 ‘귀화 사연’을 털어 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창림 선수는 재일교포 3세인데요.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 대학 재학 시절 여러 차례 귀화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귀화를 하고 싶지 않았다. 꼭 한국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었다”고 태극마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안창림 선수는 지난해 2월 한국 용인대학교에 편입한 이후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요. 지난해 11월 제주 그랑프리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지난해 12월 도쿄 그랜드슬램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면서 73kg급의 세계적인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남자 73kg급은 한국 유도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체급인데요. 안창림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빛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체육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문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체육계 4대악 척결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그 어느 때 보다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도 지방 체육은 영일(寧日)이 없다. 우리나라 체육의 젖줄이자 뿌리인 지방체육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스포츠와 관광이 어울어지는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UNESCO가 인정하는 3관왕에 올랐다. 2011년에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제주가 전 세계인이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하는 '환경 자산의 보물섬'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지가 된 연유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런 관광과 달리 스포츠는 어떨까? 스포츠는 무엇보다 인적 인프라가 기본이지만 제주도는 이 부문에서 다른 광역시도들에 견주어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 명소라는 장점에다 스포츠를 접목함으로써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발전에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최적의 전지훈련지, 최대의 국내외 대회 유치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축구팬들의 시선은 제주도로 쏠렸다.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1무2패의 초라한 성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퇴진한 뒤 외국인 감독으로 진용을 정비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신년을 맞아 첫 국제대회인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제주도에 훈련캠프를 차렸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55년 만에 아시아 왕좌 탈환을 노리는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눈과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 훈련캠프를 차린 데는 바로 훈련에 적합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주도는 한라산에 눈이 많이 쌓이고 평소에도 바람이 심하게 불기는 하지만 연간 평균 온도가 15~16도에 이르는 온화한 날씨가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전국이 영하권에 떨어져도 제주도는 항상 영상을 유지하는 따뜻한 날씨가 전지훈련 최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먹거리나 잠자리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관광명소들은 훈련에 지친 선수들에게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와 맞춤형 전지훈련 체육시설,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편의 제공은 매년 4천 개 이상 팀과 8만 명에 이르는 선수 임원들을 제주로 불러 모으는 원동력이다.

대한체육회 양재완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제95회 전국체전을 치르고 난 뒤 “전국체전을 치르기 전에는 각종 인프라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잔디 축구장 등 실외경기장뿐만 아니라 실내경기장과 체육관 등이 제주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다 관리 상태가 좋아 오히려 놀랐다”고 할 정도였다.

최근 연도별 제주도를 찾은 전지훈련 팀 현황을 보면 2010년 4,419개 팀 86,88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그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2011년(3,865개 팀 66,043명), 2012년(4,019개 팀 65,724명), 2013년(3,413개 팀 70,667명)으로 다소 주춤하다 지난해 10월까지 4,754개 팀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들 팀들을 종목별로 보면 축구가 전체의 34.5%로 가장 많고 태권도(15.7%), 수영(9.8%), 골프(7.8%), 육상(7.1%)에다 야구, 테니스, 농구 등의 순으로 실내외 종목에 관계없이 다양했다.

제주도가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명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연간 가장 많은 국내외 대회와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대회로는 지난해 연말 열린 국제복싱연맹이 주관한 세계여자복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전 세계 30개국 1,200여명이 참가한 2014코리아그랑프리국제유도대회, 2014제주국제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제주-여수국제요트레이스 등 12개에 이른다. 또 국내대회로는 각종 골프대회와 자전거, 요트, 마라톤 등 96개나 된다.

이처럼 제주도는 매년 100개가 넘는 국내외 대회를 치르면서 스포츠관광 수요 창출에 한몫을 할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제주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록 제주도가 엘리트스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지 모르지만 국내 최대의 전지 훈련지로, 또 국내외대회 경기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스포츠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제주체육회관, 우수선수 육성의 요람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 제주체육회관은 제주 체육인들의 중심이자 제주 우수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4,42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998년 6월에 완공된 체육회관은 지난해 개최한 전국체전에 대비해 다목적 체육관 증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제주체육회관의 개보수 및 증축은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을 롤모델로 삼았다. 즉 제주종합경기장내 체육시설과 체육회관에 신설하는 각종 훈련장들을 연계시킴으로써 선수들이 최상의 훈련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 1층은 기존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을 개보수해 레슬링 훈련장과 체력단련장으로 바꾸었다. 지상 1층에는 태권도 훈련장을 새로 만드는 한편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해 3개의 정규규격 코트를 갖춘 스쿼시 경기장을 설치했다. 또 지상 2층에는 체조훈련장을 신설해 훈련과 함께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19개실인 선수합숙소는 2인 1실 규모의 최신시설을 갖춘 22개실로 개편하고 1층에 250석 규모의 대규모 구내식당을 만들어 선수들의 복지향상에도 신경을 쏟았다.

올해 초 지상 4층에 여자 선수들을 위한 15개실의 합숙소 시설 공사가 완공되면 그야말로 제주체육회관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요람이자 명실상부한 제주 스포츠의 메카가 될 전망이다.

## 선택과 집중으로 작지만 강한 제주 체육 지향해야

인구 60만 명에 불과한 제주도로서는 다른 광역시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포츠 인적 인프라 구성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더구나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곳이 제주도다. 대신 남녕고등학교에 3개 학급 90명으로 체육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전국체전 등 전국 17개 시도 경쟁에서 꼴찌에 맴도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지난해 홈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종합 11위에 올랐지만 이는 개최지 이점 덕분에 앞으로 이 순위 유지는 언감생심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제주 전국체전 결과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제주 체육의 현주소는 확연히 드러난다.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 연고 선수로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유도의 김재범(한국마사회), 양궁의 정다소미(현대백화점)와 오진혁(현대제철)을 비롯해 야구 강민호(롯데이언츠)와 여자 축구 임선주(현대제철), 남자 축구 임창우(대전시티즌), 광해성(성남FC) 정도였다. 이 가운데 김재범, 정다소미, 오진혁은 제주연고 실업팀 소속이고 나머지는 실제 제주출신이라는 하지만 고향 팀과는 완전히 별개였다.

제95회 전국체전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금메달 52개를 비롯해 총 167개의 메달(은 54개, 동 61개)을 따내 종합 점수 31,861점으로 종합성적 11위, 금메달 획득 성적 9위라는 뛰어난 결과를 거두었다. 이는 물론 제주도청의 역도, 유도, 레슬링, 사격, 씨름,



지난해 2월 열린 제주 체육고등학교 설립 기초 조사 연구 관련 공청회.



제주 소속 선수들의 새벽훈련 현장을 찾은 원희룡 제주도체육회장(맨앞 오른쪽).

태권도를 비롯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의 육상, 수영, 복싱 등이 큰 활약을 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대한항공, 현대백화점, 현대제철 등 연고 실업팀들의 활약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어 주었다.

즉 제주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한 기초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현재 제주대, 국제대, 한라대, 제주관광대가 육성하고 있는 대학팀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주도체육회 원희룡 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덜란드는 인구가 세계 60위 밖이지만 스피드스케이팅 등 겨울 스포츠 강국이며 축구도 세계 수준급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종목을 키우고 유소년 단계부터 잠재력 있는 새싹을 발굴할 수 있는 스포츠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또 원 회장은 산, 바다, 바람, 말 등 제주에 맞는 제주형 스포츠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강조하고 있다. 바로 제주도의 경쟁력이 통하는 종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제주 체육을 만들겠다는 원 회장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앞으로 제주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 가운데 하나다. 🏊

글·정태화 대한체육회 홍보위원/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2014 우수꿈나무 해외연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김대희 사무처장



“제주 체육의 백년 대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제주 체육의 백년 대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만 좀 더 학교체육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체육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김대희 사무처장은 “제95회 제주전국체전에서 우리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고 도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 같다”는 말로 제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종합 성적에 뿌듯함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1986년 6월 1일 체육회 직원으로 발 디딘 뒤 모든 부서를 섭렵하고 28년만인 지난해 8월 20일 전국체전 개최지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에 열린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한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려 2014년을 자신의 최고의 해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김 처장은 제주도에서 열린 1998년 제79회와 2002년 제83회 전국체전을 담당 과장으로 치른 경험까지 있어 ‘제주 전국체전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제95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요인에 대해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 여부는 그 지역의 문화 수준과 비례한다”며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밑거름이 되었다는 김 처장은 그러나 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선수단 구성에 애로를 겪었으며 전국체전을 위해 급조된 단체도 있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또 이렇게 급조를 하고도 학교 팀 창단이 어려워 결국은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주도가 3번의 전국체전 개최를 통해 시설 인프라를 갖추게 됐고 운영 노하우도 쌓았다”는 김 처장은 “급변하는 체육정책 속에서 새로운 제주 체육의 출발을 위해 임기동안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우수선수과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한 체계를 만들어놓고 싶다”고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지방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지부임에도 중앙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예산, 인원 등 모든 면에서 힘듭니다. 지금 지방체육은 브랜드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앙경기단체에서 전국체전 개최지에 특정업체의 경기용품이나 용구들의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고 쓴 소리를 한 김 처장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스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주 체육인들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우리 부서를  
소개합니다

# “국가대표의 건강, 우리가 지킵니다”

## 스포츠의과학부

###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쏟는 정성, 상상 그 이상

스포츠의과학부가 새해 들어 부서 이름을 스포츠의과학부로 바꾸고, 그동안 진천선수촌과 태릉선수촌으로 나뉘어 운영하던 의료팀 행정을 일원화시키면서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부상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포츠의과학부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진천과 태릉에서 훈련 중인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30개 종목 600여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 때문에 태릉과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대표선수들이 가장 친근하게 만나는 부서가 바로 스포츠의과학부다.

스포츠의과학부에 행정직원 3명과 재활의학 및 정형외과 전문의 2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5명이 태릉과 진천으로 나뉘어 선수들의 부상치료와 재활훈련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다.

“훈련 도중 부상이 생기면 우선 재활 및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X-ray 검사와 초음파검사 등을 합니다. 가벼운 부상은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약을 처방받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병행한 재활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부상정도가 심각하거나 내과적 질병의 경우 정밀검사와 정확한 치료를 위해 외부 협력병원에 2차 진료를 의뢰합니다.” (조태욱 부장)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종합국제대회가 열리면 체육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부서가 바로 스포츠의과학부와 조리팀이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태규 주임, 김래희, 김상현 (이상 운영직), 황용 의사, 조태욱 부장, 임용운 과장, 전승희 주임, 김시연, 안유진, 이은희(이상 운영직)





대회 현장에서 가벼운 부상이라도 당하면 4년간 공들여온 훈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스포츠의과학부는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비상상태에 들어간다.

현장에 파견되는 전문의들은 휴대용 치료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선수촌에 설치해 놓고 24시간 대기한다. 휴대용의료장비도 최신 제품으로 상당한 고가제품들이다. 그만큼 체육회에서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재활치료에 쏟는 정성은 상상 이상이다.

한국의 의무서비스 수준은 스포츠선진국들인 G7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외부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선수촌 의료팀 전문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지만, 의무서비스 수준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체육회는 9개 국내 유명대형병원과 협약을 맺어 언제든지 선수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도핑 관리도 꼼꼼하게

선수들의 도핑방지도 주요업무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방지 시스템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경기장 현장에서 도핑검사를 주로 했지만, 요즘은 경기장이 아닌 장소에서 불시에 도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예방기능을 훨씬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핑검사팀(WADA:세계반도핑기구)이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유명선수들의 소재지 정보를 IOC로부터 넘겨받아 불시에 찾아옵니다.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가 인천아시아게임을 앞두고 국제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뻔 했던 것도 바로 소재지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조태욱부장)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종목별 유명 선수들이 주 대상이다. 종목별 유명선수들은 IOC의 소재지정보 네트워크에 IOC로부터 부여받은 ID로 등록해 수시로 자신의 소재지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용대 선수의 경우 소재지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WADA 도핑검사관이 방문했을 때 두 번이나 허탕을 치는 바람에 징계 사유가 된 것이다.

국내의 경우 체육회에서 도핑 여부를 관리하는 대상은 대표선수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 선수들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ADA에서 관리한다. 요즘은 도핑에 대한 선수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실제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선수는 거의 없다.

지도자 및 선수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훈련중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상해보험 관리도 주요 업무중 하나다. 2012년 터키에서 열린 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한국팀 감독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상해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보험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엔 의무서비스 주요대상이 부상 후 재활치료에 집중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1 인천선수촌 스포츠의학부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 국가대표 선수를 진료하고 있는 황용 의사.

### 선수 부상예방 프로그램 보급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의과학부는 올해 의미있는 작업을 시작했다.

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무릎전방십자인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운동 프로그램을 이 분야 국내 최고권위 의사 2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체계적인 매뉴얼로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체육회 산하 의무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수도 없이 논의돼왔지만, 결국 논의만 하다 끝나고 말았던 숙제를 비로소 풀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진료로 바쁜 전문의 두 명이 일 년 동안 매달려 그 결과물을 곧 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십자인대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잘 다치는 주요 부위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체계적으로 하나씩 매뉴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작업은 IOC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있어 한국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매뉴얼을 IOC를 통해 평가를 받은 뒤 가능하다면 전 세계 모든 선수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조태욱부장)

글·김기선 전 문화일보 체육부장



## 조직의 역량, 핵심은 사람이다

인사·평가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결국은 사람이다.”

2014년 인사·평가 동아리 활동 내내 우리 동아리원들이 공감했던 주제는 이 한 문장으로 응축된다.

### 조직의 중요한 화두, 인사평가

조직은 특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성되고 운영된다.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조직 구성 요소를 집결하고 고유한 비전을 제시하며 조직 운영을 위한 정교한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말단 조직 간의 필연적인 경쟁이 유발되고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 하나하나의 고유성과 소중함은 무시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조직은 결국 구성원들의 만족과 그들 상호간의 협의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 발전의 핵심은 ‘사람’이며, 이러한 이유로 합당한 인사·평가 제도는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화두이다.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체육회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인사·평가 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고 조직 문화의 견고함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을 젊은 직원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김예슬 주무, 노조 집행위원으로 평소 인사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정훈 주무, 과거 평가업무를 수행했던 박도국 대리,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전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보람 대리,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사교류로 파견나와 있는 김경수 대리가 함께하였다. 우리 동아리는 2014년 8월에 구성하여 4개월 간 다섯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으며, 동아리원들 모두 저마다의 바쁜 근무시간을 쪼개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 등의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었다.

우리는 먼저 체육회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다. 조직 목표의 달성을 고려할 때 인사와 평가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최대의 업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인사제도에 대한 체육회 내외부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내부청렴도 평가 중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항상 저조하였으며 직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었다. 정원 증원이 어려워 신규채용 여력이 부족하고, 고질적인 인력 적체와 승진 소요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결국 하위직급의 상위직급으로의 선순환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 또한 수 차례의 평가방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인정과 친분에 따른 관행적인 평가와 개인별 평가결과 고착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 같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결국 성과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근무사기가 저하되고 있었다.

##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고민

인사정책의 개선과 평가 방법의 공정성 확보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수 차례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아쉽게도 동아리 활동만으로 제도 전체를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는 명확해 보였다. 우리는 일단 다른 공공기관의 인사·평가제도를 분석해 보고 체육회에 적용할만한 선진 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목표를 선정하였다. 동아리원 각자가 기관평가 시 인사·조직관리 면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하여 현황 분석과 발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한국감정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체육회에 도입할만한 제도를 선별하였으며, SK 커뮤니케이션즈의 세밀한 평가절차를 분석하여 체육회의 평가제도와 비교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사·평가 동아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체육회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명문화된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 사례도 파악해 보았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를 마련하여도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실천적인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재경영팀 이종준 팀장님을 모시고 공단의 인사제도 운영현황을 듣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함께 논의한 것은 의미깊은 시간이었다. 실제로 공단은 경력개발제도(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도입,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 운영, 다양한 보상체계 실시 등 대규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인사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사 발령 시 일관된 원칙 적용이 어렵고, 평가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 속출하고 있어 끊임 없이 제도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평가의 대전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평가자마다 다르다. 따라서 현실적인 평가와 보상은 상위 10%에 대한 혜택과 하위 10%에 대한 제재방안을 추구하고, 중간 계층은 연공 서열을 포함한 일반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체육회 인사·평가제도 장단기 개선안 마련

이러한 기관별 규정의 분석과 제도의 적용성 논의를 거친 후, 우리 동아리에서는 체육회 인사·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 제안을 마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직급별이 아닌 성과



에 따른 본부별, 부서별 등급 인원 배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편담 실시로 상호 업무성과 확인과 부족한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 1회의 성과평가 실시로 실질적인 업무성과 파악이 어렵고 인사이동 시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성과 수시 리뷰를 제안하였다.

이 밖에 평가 이의제기 프로세스 개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각 제안의 적용 가능성 검토와 관련 규정 개정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체육회 인력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는 임금피크제와 경력개발계획, 그리고 저성과자 육성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였다. 각 주제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노사 간의 심도 깊은 토론과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2년 이상 최저평가자에 대한 퇴출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체육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회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직원의 근무 여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개월 간의 짧은 기간 동안 체육회의 인사·평가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체육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여타 기관과의 비교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는 있었다. 향후에는 장단기 제안 사항에 대한 추진 노력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조직 개선의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글·김정미 대한체육회 인사·평가 동아리 간사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본산인 대한체육회는 2015년 1월 현재 70개 가맹 및 준가맹 단체를 거느리고 있다.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경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종목 이름 자체가 생소한 경기 단체도 있다. 그렇지만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경기 단체는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 아마추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스포츠 코리아'는 이들 단체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특집 시리즈를 마련했다. 카누(하)편은 연말 연초 특집 관계로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아시아 넘어 세계 향한 발걸음

## 대한카누연맹 (하)

### 연맹 출범하자마자 올림픽에 데뷔

1983년 3월 26일 출범한 대한카누협회가 현재 이름으로 바뀐 때는 이듬해인 1984년이였다. 그해 카누는 대구에서 열린 제 6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됐고 연맹은 제 1회 회장배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 23회 하계 올림픽에 윤희춘 장영철 두 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윤희춘은 C1 500m 예선에서 2분 15초72로 들어온 스웨덴의 고란 바크룬트에게 25초20이나 뒤진 기록으로 꼴찌를 했다. 이 종목의 금메달리스트인 래리 케인(캐나다)이 결승에서 세운 1분57초91에 53초47이나 뒤지는 저조한 성적이었다. C2 500m에 출전한 윤희춘-장영철은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금메달 조인 유고슬라비아의 마티아 류베크-미르코 니소비치와는 36초56의 기록 차이가 났다. 일본은 이노우에 기요토가 C1 500m에서 6위를 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한국보다 약간 앞섰을 뿐 세계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 2014년 현재 아시아 나라로는 유일하게 올림픽 메달(금메달 2개)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카누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중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연맹은 그해 전일본학생선수권대회와 아시아카누연맹 창립 기념 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압축 성장'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그리고 첫 번째 결과물이 (상)편에 소개된 천인식이었다.

### 올림픽에 이어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첫 출전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 단체가 된 1985년에는 벨기에에서 열린 제 19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국제카누연맹(ICF)이 주최하는 세계

선수권대회는 1938년 스웨덴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제 2회 대회가 10년 뒤인 1948년 영국에서 열리는 등 초창기에는 1~5년 등 일정하지 않은 주기로 열렸다. 그러다가 1970년 덴마크 대회 이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를 빼고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한국이 첫 출전한 벨기에 대회에서는 동독(금 7 은 2 동 2)이 압도적인 기량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ICF 세계선수권대회는 지난 8월 모스크바에서 열렸고 2015년 대회는 이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는 그동안 유럽 또는 북중미 대륙에서만 개최됐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올림픽과 달리 아시아 나라들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1993년 덴마크 대회부터 출전하기 시작했는데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로 통산 종합 순위 32위에 올라 있다. 중국(은 6 동 5)은 41위, 일본과 카자흐스탄(이상 동 1)은 칠레와 함께 공동 46위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 카누의 발전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성적이다.

### 서울 올림픽 준비와 개최

한국 카누가 짧은 역사 속에 빠르게 발전한 데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실은 (상)편에 기술한 바 있다. 연맹은 1986년 로마에서 열린 ICF 이사회에서 1987년 서울 국제카누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그해에는 해군본부의 후원으로 제 1회 해군참모총장배 쟁탈 전국카누대회를 열었고 서울 올림픽에 대비해 국제 심판 양성에 힘쓴 결과 6명의 국제 심판이 탄생했다.

1987년에는 카누 강국인 헝가리에서 2명의 코치를 초빙해 국가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중국에서 열린 제 2



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4개를 차지했다. 그해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선수단을 파견했고 국제 심판 5명이 추가로 나와 아시아에서 최다 국제 심판 보유국이 됐다. 연맹 출범 4년 만에 일군 놀라운 성과였다. 서울 올림픽의 사전 대회 성격인 1987년 서울 국제카누대회는 24개국에서 232명(임원 78 선수 154)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초창기 한국 카누의 지상 과제였던 서울 올림픽 카누 경기는 32개국 321명(남자 249 여자 72)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12개의 금메달을 놓고 미사리경기장에서 열렸다. 동독(금 3 은 4 동



2014인천아시아안게임에서 24년 만에 한국 카누에 금메달을 안긴 조광희.

2)과 소련(금 3 은 3), 헝가리(금 2 은 1 동 1) 등 동유럽 나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메달을 딴 국가는 10개에 불과했다. 한국은 남자부에 12명, 여자부에 6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나 장영철이 남자 C1 500m, 천인식이 남자 K1 500m, 김미자가 여자 K1 500m 그리고 여자 K4 500m에서 준결승에 오른 데 만족해야 했다. 성적은 썩 좋지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카누도 매우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포스트 서울 올림픽’, 이제는 도약기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연맹은 1989년 집행부를 개편하고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 유능한 지도자의 육성 등의 목표를 내걸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그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 3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한국 카누가 국제 대회에서 딴 첫 금메달이기도 하거니와 2년 전 제 2회 대회(은 1 동 4) 성적과 비교하면 크나큰 진전이었다.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연맹은 국가 대표 선수 전원을 유고슬라비아와 동독에 전지훈련을 보냈다. 전지훈련 기간 출전한 브란덴부르크국제대회에서 두 종목의 한국 기록이 경신했고 귀국한 뒤 열린 국내 대회에서도 좋은 기록이 쏟아졌다.

투자의 결실은 (상)편에 기술한 대로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바로 거둘 수 있었다.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이듬해인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제 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로 다시 한번 도약했다. 1993년 또다시 일본에서 열린 제 5회 대회에서는 ‘노 골드’(은 8 동 2)로 주춤했지만 1995년 중국이 개최한 제 6회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다.

1996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열린 제 2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 카누 저변 확대의 계기가 마련됐다. 1997년에는 속초에서 제 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제 1회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를 개최했고 2001년 이란에서 열린 제 9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2007년에는 화천에서 제 12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열어 카누 인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한국 카누는 출범 30년을 갓 넘긴 2015년 현재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베이징 대회 이후 금메달 소식이 끊겼고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는 ‘노 메달’에 그치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강호 중국 외에 1994년 히로시마 대회부터 옛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가세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졌다. 그러나 절치부심한 한국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조광희가 남자 K1 200m에서 35초 464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금메달의 맥을 다시 이었다.

조광희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천인식이 남자 카약 1인승 1,000m, 카약 2인승 500m·1000m에서 3관왕에 오른 이후 24년 만에 한국의 아시안게임 카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또 여자부에서 은메달 1개(K4 500m)와 동메달 1개(K1 500m)를 보태는 알찬 성과를 거뒀다. 특히 1998년 방콕, 2002년 부산,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 이어 4번째 아시안게임에 나선 이순자(36)는 1인승 500m에서 동메달을 딴 데 이어 김유진, 이혜란, 이민 등 후배들과 함께 4인승 500m에 출전해 은메달을 추가, 불굴의 도전 정신을 남겼다. <끝>

글·신명철 대한체육회 홍보위원/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 대한체육회, 효율적인 조직 운영 위해 직제 개편

대한체육회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직제개편에 이어 2015년 1월 해당 직제에 따른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전담프로젝트팀 운영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진한 체육회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고, 본부별 부서 재편성 및 부서 신설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경영지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획-예산(기획예산부), 인사-총무(인사총무부)를 통합하고 경영혁신부를 신설해 신규사업 발굴/혁신업무와 대내외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둘째,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지원, 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경기운영부에서 체육단체 지원업무를 분리해 전담조직을 편성하고(체육단체지원부), 체육인 복지 업무 강화를 위해 체육인 복지부, 국가대표 선수 등 대상 교육업무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부를 신설했다.

셋째,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관리 체제를 일원화해 태릉 및 진천으로 나누어 있던 훈련기획부, 훈련지원부, 스포츠의과학부를 선수촌운영본부 안에 편성하고, 국가대표 훈련 관리 및 선발 관련 기능과 올림픽,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업무를 훈련기획부로 일원화하였다.

이로써 대한체육회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1사무차장, 3본부, 1단, 1센터, 2실, 16부, 3임시기구(27개 부서) 체제가 됐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300명 규모로 확대 논의

대한체육회는 1월 21일 체육발전위원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 선거방식 개선안을 논의해 300여 명으로 선거인단을 늘리는데 의견집근을 보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 13명의 발전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현행 59명으로 이루어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뽑는 선거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별도의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 방식 도입에 반대가 없었다. 즉 35개 올림픽 종목, 21개 비올림픽 종목, 17개 시도체육회, 10개 체육협력단체, 선수협의회, 지도자협의회, 심판협의회 등에서 선거인단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발전위원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발전위원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올림픽 종목이 투표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올림픽 종목과 비올림픽 종목의 선거인단을 배정해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발전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새로운 통합단체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체육회, 2015 예산 최대 2200억 원

올해 한국 스포츠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예산이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2,086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월 29일 올해 예산이 국민체육진흥기금 1,990억 원, 자체 96억 원 등 총 2,086억 원으로 지난해 1,971억 원보다 115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비 동계 종목 지원 및 국가대표 훈련 지원금이 대폭 오른 것이 반영된 결과다. 평창동계올림픽 우수 성적을 위한 동계종목 지원은 32억4200만 원 늘었고, 국가대표 국외 전지훈련 및 외국인코치 지원 확대에도 34억8800만 원이 올랐다.

최대 증액 비율은 전략종목 활성화로 지난해 23억5400만 원에서 108.3%(25억5000만 원) 증액됐으며 이외에도 후보, 청소년, 꿈나무 등의 선수 육성 시스템 지원 강화에 47억9400만 원, 경기단체 인건비 인상에 1억4700만 원,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13억 원이 더 편성됐다.

대한체육회는 연중 약 120억 원의 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총 예산은 2,20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 국가대표 후보선수 29종목 1,470명 동계합숙훈련 돌입



대한체육회는 1월부터 3월까지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후보선수(29종목 총 1,470명)를 대상으로 2015년도 동계 합숙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합숙훈련은 기본체력 강화 및 기술훈련, 그리고 후보선수 소속 학교운동부의 평상시 훈련에 대한 성과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총 20일(일부 종목 25일)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양성 강화를 위해 동계합숙훈련시 선수수당을 신규로 지원하며, 전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3.4% 인상하였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비 동계스포츠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28종목에서 컬링 종목(지도자 2명, 선수 10명)을 추가한 29종목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은 국가대표 선수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우수선수 중 선발전 기록 및 대회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진행되며,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



## 동계 U대회 선수단 결단식 개최... "평창 성공위한 기반 닦겠다"



제27회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1월 15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2월 4일 스키와 바이애슬론은 슬로바키아에서,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은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개막하는 이번 U대회에 한국은 스피드 스케이팅을 제외한 5개 종목(세부 10종목)에 133명(선수 90명, 경기임원 20명, 본부임원 23명)이 출전한다.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은 결단식에서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해 목표한 바를 이루길 바란다"며 "전 세계 선수들과 스포츠로 우정을 나누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한국 스포츠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선수단은 22일 슬로바키아로, 31일 스페인으로 각각 출국했다.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에서 열려

대한체육회는 1월 27일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 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 열리는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서울을 선정했다. 제 100회 전국체전은 2019년 10월에 7일 동안 38개 종목에 걸쳐 펼쳐지며 개·폐회식은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정가맹단체 1개(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준가맹단체 4개(대한플로어볼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체스연맹), 인정단체 3개(한국자동차경주협회 대한폴로협회 대한치어리딩협회)를 승인했다. 대의원총회에서 정가맹단체 승인이 의결되면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는 정가맹 57개, 준가맹 9개, 인정 8개로 늘어난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부터는 골프와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신설되고 바둑은 2016년부터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 대한체육회 이사 6명 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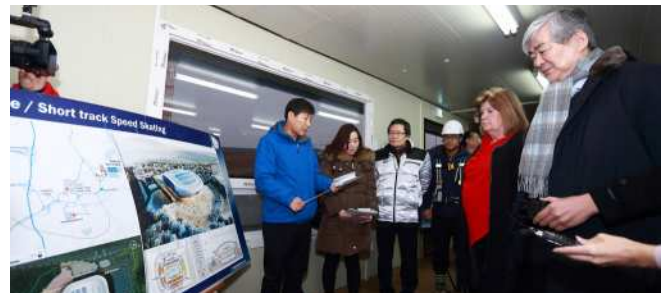
박순호 김진용 조종성 김진호 이인정 남상남

대한체육회는 1월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체육회 이사로 박순호(대한오토협회장), 김진용(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 조종성(대한궁도협회장), 김진호(한체대 교수), 이인정(대한산악연맹회장), 남상남(한국체육학회회장) 등 6명을 보설했다.

## 제13회 한일청소년동계스포츠교류, 서울 강원서 개최

대한체육회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과 강원도에서 제13회 한일청소년동계스포츠교류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한국이 4종목 136명, 일본이 154명이 참가해 열린 이번 한일청소년 동계스포츠교류는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아이스하키, 컬링 등 4종목의 연습 및 공식경기, 한국의 전통문화 탐방으로 이어졌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평창 분산 개최 안하기로 결정



1월 15일 강원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오른쪽)과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오른쪽에서 2번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이날 조직위에 따르면 린드버그 위원장은 15일부터 이틀동안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리조트에서 열린 제4차 프로젝트 리뷰 본회의에 앞서 "IOC는 지난해 '아젠다 2020'을 발표하면서 올림픽 종목을 개최지 이외의 도시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평창의 경우 현재 계획된 배뉴 그대로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은 "내년도 첫 번째 테스트이벤트를 앞두고 올해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밀접한 업무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스키협회장, 2020년까지 100억원 지원



1월 17일 신동빈 대한스키협회장(왼쪽)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함께 20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강원도 용평 알파인 경기장을 방문해 스키코스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대한스키협회장으로 취임한 신동빈 회장(롯데그룹 회장)이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코스를 점검하고 스키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일대 스키장을 방문해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 신 회장은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메달 포상금은 물론 국내 경기단체 최초로 4~6위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스키협회에 20억 원을 출연하는 등 2020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해 외국인 코치 확대,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일수와 대회 참가 횟수 확대, 선수별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평창, 5월 개회식 감독·12월 마스코트 공개

2018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분산 개최 논란을 접고 올림픽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광영진 조직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1월 20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진행했고 경제적·정서적·문화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안대로 대회를 준비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분산 개최 논란에 대해 단독 개최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직위가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6년 2월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 경기장을 조기에 건립하고 개·폐회식의 총감독은 오는 5월, 부문별 감독단은 6월 선정해 개·폐회식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대회 마스코트는 올해 12월까지 완성하고 2016년 3월까지 슬로건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체육기자의 밤 열려...이길용기자상에 박종복 KBS 부장



박종복 KBS 스포츠취재부장(왼쪽)과 김경호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김경호)은 1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체육기자의 밤’을 열고 제25회 이길용 체육기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고 손기정 선생이 우승했을 때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던 이길용 기자의 정신과 한국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길용 기자상은 박종복 KBS 스포츠취재부장이 수상했다. 박 부장은 1994년 KBS에 입사 한 뒤 20년 동안 국내외 스포츠 현장을 누빈 스포츠 전문기자로 활동해 왔다. 또 한 해 동안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중앙일보 정영재 부장은 생활체육 7330 보도상을 받았다. 이날 체육기자의 밤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형 대한체육회장,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체육계 인사들과 현직 체육기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소강체육대상, 지도상 김미정 용인대 교수



“한국체육 근대화의 아버지” 고 소강 민관식 전 대한체육회장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2015년 제7회 소강체육대상 5개 부문 수상자들이 결정됐다. 소강민관식육영재단은 1월 20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로상에 박상하 국제정구연맹 회장, 지도상에 김미정 용인대 교수, 언론상에 전영희 스포츠동아 기자, 남녀 최우수선수상에 박성빈(요트·충남대천서중)과 정설화(사이클·나주다시중), 특별상에 박진호(사격·청주시청) 이미연(스노보딩·성신학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박상하 회장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국제정구연맹 회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OCA 부위원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 여자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김미정 교수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여자 유도 코치로 우리나라 종합 2위에 힘을 보탠 공로로 지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소강체육대상 시상식은 2월 10일 11시 30분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 아시아역도연맹 부회장 선출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이 아시아역도연맹(AWF)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회장은 1월 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AWF 임원 선출 총회에서 39표 가운데 27표를 얻어 7명의 부회장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다. 이날 총회에는 18명이 입후보했고 7명이 부회장에 당선됐다. 이한경 대한역도연맹 국제이사는 AWF 지도 연구원에, 가호현 사무국장은 AWF 사무차장에 선출됐다.

###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 제30대 대한체조협회장 선임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이 제30대 대한체조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대한체조협회는 1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5년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황 신임회장은 "국민 사랑을 받는 한국 체조가 되도록 체조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선수를 육성·발굴하는 정책기조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겠다"면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체조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도록 체조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력하자"고 말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한 황 회장은 재무담당 전무와 경영기획실·해외영업부 부사장을 거쳐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취임했다.

### 대한육상경기연맹, 2020도쿄올림픽 로드맵 발표

한국 육상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꽃피우기 위한 장기 육성 전략을 내놓았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월 16일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2개를 획득하고 10개 종목에서 결선(8위 이내) 진출자 배출을 목표로 한 '한국 육상 새로운 도약 및 육상 선진국 진입 기반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육상 연맹은 단기적으로는 올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4종목 결승 진출자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한편 주요 선수를 A~C 등급으로 나눠 신인 발굴과 현역 최고 선수의 관리 병행하기로 했다.

A등급은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지난해 30위권, 2년간 30위권에 드는 최고 등급의 선수로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진민섭,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 남자 경보의 김현섭·박철성 등 4명이 해당한다. B등급은 지난해 세계랭킹 50위권 혹은 아시안게임 결선 진출자 수준의 선수들이며 C등급은 장기 육성이 필요한 젊은 유망주들이다.

한편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대한체육회 56개 정가맹경기단체 가운데 2014 조직운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 SPORTS CALENDAR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2월 국내·외 대회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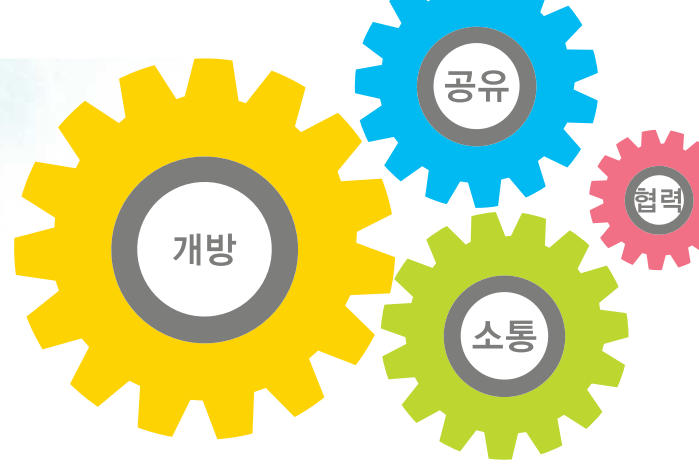
협 회	구분	대 회	기 간	장 소
대한체육회	국제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01.24 ~ 02.14	슬로바키아, 스페인
	국내	제96회전국동계체육대회	02.25 ~ 02.28	서울, 강원 외 3곳
대한검도회	국내	2015 SBS배 전국검도왕대회	02.24 ~ 02.25	서울
대한농구협회	국내	2015 KBL 총재배 춘계전국남자중고농구대회	02.04 ~ 02.12	경북 안동
대한당구연맹	국제	2015 제21회 도쿄오픈 3쿠션토너먼트	02.07 ~ 02.08	일본 도쿄
		2015 세계 10볼 선수권대회	02.15 ~ 02.21	필리핀
대한럭비연맹	국내	2015 전국 7인제 럭비대회 겸 2015 국가대표 선발전	02.27 ~ 02.28	경북 경산
대한루지경기연맹	국제	제45회 FIL Luge 세계선수권대회	02.14 ~ 02.15	노르웨이
대한레슬링협회	국내	제2차 국가대표 선발대회 및 청소년 대표 선발대회	02.25 ~ 02.28	강원 양구
대한바이애슬론연맹	국내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02.12 ~ 02.15	강원 평창
대한배구협회	국내	2015 천년의 빛 영광배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01.30 ~ 02.05	전남 영광
대한배드민턴협회	국내	제20회 원천배 전국초등학교배드민턴선수권대회	02.09 ~ 02.12	경기고양
		2015 한일 국가대항 배드민턴경기대회	02.05 ~ 02.09	제주
	국제	2015 독일오픈배드민턴그랑프리골드	02.24 ~ 03.01	독일 뮐heim
		2015 네덜란드주니어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02.25 ~ 03.01	네덜란드 할렘
대한빙상경기연맹	국제	제 6차 스피드 월드컵대회	02.07 ~ 02.08	네덜란드
		2015 세계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02.12 ~ 02.15	네덜란드
		제 5차 스피드 월드컵대회 (파이널, Jr.)	02.14 ~ 02.15	폴란드
		2015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주니어 선수권 (Jr.)	02.20 ~ 02.22	폴란드
		2015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스피린트 선수권	02.28 ~ 03.01	카자흐스탄
		2014/2015 제5차 쇼트트랙 월드컵대회	02.06 ~ 02.08	독일
		2014/2015 제6차 쇼트트랙 월드컵대회	02.13 ~ 02.15	터키
		2015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02.27 ~ 03.01	일본
2015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02.09 ~ 02.15	한국, 서울		
대한사격연맹	국내	제4회 전남도지사배 사격대회	02.07 ~ 02.11	전남 나주
대한사이클연맹	국내	제62회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02.24 ~ 02.28	전남 강진
대한수영연맹	국내	제5회 김천 전국수영대회	02.24 ~ 02.28	경북 김천
대한스키협회	국제	알파인선수 세계선수권대회	02.02 ~ 02.15	미국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노르딕복합 세계선수권대회	02.18 ~ 03.01	스웨덴
	국내	통일배 알파인스키대회	02.03 ~ 02.04	경기 용인
대한축구협회	국제	2015 태국 킹스컵	02.01 ~ 02.07	태국
대한체조협회	국제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리듬체조)	02.18 ~ 02.25	말레이시아
대한탁구협회	국제	2015 ITTF 월드투어 쿠웨이트오픈, 슈퍼시리즈	02.11 ~ 02.15	쿠웨이트
		ITTF 월드투어 카타르오픈, 슈퍼시리즈	02.17 ~ 02.22	카타르
대한테니스협회	국내	2015 서귀포칠실리오픈테니스대회	02.24 ~ 03.04	제주
	국제	2015 FED CUP 테니스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1그룹예선	02.04 ~ 02.07	중국

※ 위 일정은 각 단체 홈페이지에 안내된 경기로, 주최 측 사정으로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 정부 3.0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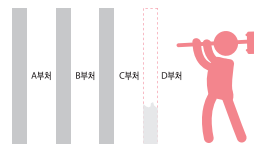
##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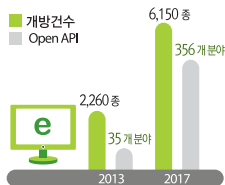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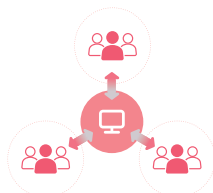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Clean Sports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정당한  
승부

공정한  
판정

금품.향응  
근절

청탁.알선  
금지

투명한  
예산 집행